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11.2.21

英蘇佛提携에對抗 獨墺伊連衡結成

◇……極秘裡에共同戰線確立할交涉을進行

關稅同盟案도復活乎

【倫敦十九日發同盟】佛國政府가 蘇聯政府와의間에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英國政府와의 軍事的協定을 確保하야 頻繁히 外交陣의 强化를 企圖하고 잇슴에 對하야 獨逸、伊太利兩國政府도 極秘裡에 共同戰線確立交涉을 進行하고 잇다고 傳하는바 伊太利代表 스비치外務次官이 十九日 회렌체에서 墺太利代表 알레네크外相과 會見한結果 大戰前의 獨墺伊三國同盟復活交涉은 着着 進展되고 잇다고한다 이미 羅馬駐箚 獨逸大使 핫셀氏는 過般 스비치次官과 會見하야 一旦 伯林에 歸還하야 히틀러總統과 協議한後 羅馬에 歸任하얏는데 다시 十七日 스비치次官과 會見한後 再次 飛行機로 伯林에 赴하얏다、 핫셀大使는 伊太利政府와의折衝經過를 一一히 히틀러總統에게 報告하야 獨逸政府의 外交方針確立에 參考케할 意向이라고 傳하는바 獨墺伊 三國政府間에는 다음의 三項으로된 協定草案이 成立되엿다고한다

一、獨墺兩國政府는 相互間關稅障壁을 低下하야 일즉이 流産되엿든 關稅同盟案을 事實上復活함

一、獨逸政府는 墺太利의 獨立保全을 保障함

一、墺太利의 獨立을 毁損치안는것을 條件으로하야 伊太利政府는 墺太利國內에在한 汎獨主義의 自由로운 權能을 容認함

同協定에는 匈牙利政府도 事實上參加할모양이다

今日!總選擧

廿日午前七時부터全投票區 一齊히投票開始

【東京電話電通】國民의政黨에對한 批判과 時局에對한 認識을 判然 具現할 廣田標幟下의 總選擧는 今二十日 午前七時부터 全國百二十二區 一萬四千餘의 投票所에서 一齊히 擧行하게되엿다 潔白한一票를 던질 千四百餘萬의 有權者의 眞意는 無言裡에 此를表徵할것이며 過去十八回의 總選擧에서 일즉이보지 못한 嚴肅한 空氣가 各投票所에 漲溢햇다 朝野兩黨、中立、社會大衆黨、國家團體等 各黨各派八百七十六名의 候補者에 對한最後의審判은 깨끗한마음으로 一票를 던지게되엿다

岡田首相은 所持票를 淀橋公會堂의 投票箱에 高橋藏相은 老軀로赤坂區役所에 後藤、小原兩相도 早朝投票를了하고 野黨의總帥 鈴木總裁는病軀로、町田總裁는 적은틈을타서 모다 貴重한一票를行使하엿다 이리하야 今夕六時 各地의投票箱은 朝野兩黨 興廢의 열쇠를열고 勝負의運命을 決하게되엿다 新潟縣第三區의三條市、福島縣第一區의福島市、同第二區의若松市、島根縣第一區의松江市等 四市는 即日開票되며 三府十四縣外九區 總計六十二區의二百四十三名은 明二十一日에開票되야 勝負를 明白히할것이다

羅津의府昇格 明年度에實現

咸北羅津邑은 最近繁榮의 잇는대 總督府에서는 明年度中에同邑을府로 昇格하기로되야 明年度追加豫算에 所要經費를 要求하기로 되엿는대 右府制實施는 十一、二月頃으로 될豫想이며 明年度府昇格은 羅津一邑에끗칠모양이다

英佛折衝順調進行 新協定草案近日完了

建艦通報案과質的制限案을骨子로하고

假調印後 日獨蘇의參加要請

【倫敦十九日發同盟】倫敦海軍會議는 開會以來 前後七十餘日에 이사이日本代表의 脫退等으로異常한 波瀾을 거듭하얏는데 佛國代表끌방大使의 歸國으로 드듸여 最終的段階에 入하야 新協定은 成立되게되엿다 이미 英代表이든外相은 끌방大使의 倫敦出發에압서 新協定草案을 提議하야 支持를 要請하얏는데 佛國政府에서도 大體로 異議가업서 今後二週間以內에 新協定은 完了될豫想이다 新協定案은 建艦通報案및 質的制限案을 骨子로함은 勿論 主力艦의 單艦噸數、備砲口徑에 對하야는今後多少의曲節은 免치못하는듯하다 新協定이成立되면 議定書의 形式으로 英米佛伊四國代表가假調印을 行할터인대 日獨蘇三國政府의 參加調印이업는限 效力을 發生치못할것이상 三國政府에 對하야는 十月頃 倫敦에서 調印하도록 要請하야 새로七個國代表의 會議를招請할듯하다

主力艦質的制限 英米意見一致

兩代表間에覺書交換

【倫敦十九日發電通】最近軍縮會議英米兩代表者間에 覺書가 交換되엿든結果 戰鬪艦의 質的制限에關한 條約原文에對하야 兩國間의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게되엿다 即英政府當局에서는 十八日 米首席代表노-만.데-비스氏에게 手交한 覺書는

一、新海軍條約의 實施期間中에는 戰鬪艦의建造는最大三萬五千噸、備砲口徑十四吋에制限할것

一、新條約調印國은 條約의 有效期間中에 質的制限改修를論議할수잇는 會議召集의 可否를決할協議를 할수잇다

라는 提案을 한것인대 此에對하야 米代表部는 十九日 書翰으로써 英政府에 手交하엿는데

一、英國의 新提案은 今日까지 戰鬪艦의 艦型에關하야 英國側의提案에關한 噸數보다도 나즌噸數를 主張하고잇는 佛蘭西及伊太利側의 提示할것이다

라는旨의 回答을하고 玆에戰鬪艦型에關한 英米間의 意見相違는 英國의 英斷的讓步에 依하야 打開를 보게되엿다 그리고 英國側에서는 新條約의 有效期間에 關하야 佛蘭西、伊太利의 希望인 一九三七年一月一日부터 向後六個年으로한데 贊成치안코 十年으로 하고십다는 意向을 갓고잇다고 傳하는데 新條約의 調印을 보기까지에는아즉 相當한 折衝이 必要하다고 認定된다

伊東阿遠征工作 英佛、事前에諒解

伊政府機關紙의暴露

【羅馬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機關紙 즈르날레·이탈리아紙는 十九日夕刊紙上에 에디오피아問題에關한 英國植民次官 써-죤·머피氏의 報告書란것을 發表하야 伊太利政府는 東阿遠征에 압서 英佛兩國과의間에 事前의諒解가잇섯고 또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의 政略에 반드시 反對치안헛다는事實을 暴露하엿다 머피이次官은 昨年春英國의 國防委員會委員으로 伊太利政府가 東阿遠征을 斷行할時 英國의利權擁護問題에對하야 研究하야 그結果를 政府에 報告한것인데 즈르날레·이탈리아紙는 右報告書中 英國은 에디오피아에 重大利權을 가지지안햇슴으로 伊太利政府의 攻略에 對하야는 特히反對할것은 업다고 述한點을 引用하야 英國政府에 一矢를放하고잇다 머피의報告書要旨는 다음과갓다

伊太利政府는 伊太利에디오피아紛爭의 最初 英國政府에接近하야 에디오피아에在한 相互利害를 調和하야 서로權益의增進을 企圖할可能性에 關하야 折衝한結果 伊太利政府가 에디오피아의 統制權을 確保한다는것은 어떤點으로든 英國에는有利하다、元來英帝國의 國防的見地에서 에디오피아獨立을 保持함은 必要하며 伊太利政府가 에國을討征한다하드래도 英政府의 權益에 影響되은 極히적을것이다 다만 英政府로서는 萬一의境遇에 타나湖를 確保하고英領쏘마리-란드、케니야及 수단地帶에國境을確定하는것이 肝要하다 머피이報告書는 다시一九三五年一月佛伊兩國政府間에 에디오피아問題에關한 秘密協定이 成立한旨를 述하엿다

汪精衛氏 急遽獨逸에出發

【上海十九日發電通】汪精衛氏는 獨逸人主治醫의 勸告로 獨逸서 負傷과其他病을 徹底的으로 治療할 … 하고 十九日午後四時當地發 … 을 向하야 出發하엿다 그리고 同氏가 出發 外遊하는것은 胡漢民氏가 汪氏의 外遊前에는 南京入치안는다고하므로 蔣介石氏가 汪氏의 念頭를外遊를 進行식힌것으로 觀한다

西班牙內閣 遂總辭職

左翼派의勝利로

【마드리드十九日發電通】十六日에 擧行한 總選擧의 結果 西班牙全土에 亘하야 左翼諸派가 決定的勝利를 博하고 各地에 騷擾가 續出하게되엿스므로 보르테로氏를首班으로한 西班牙內閣은 十九日드듸어 總辭職하엿다

左翼共和派領袖 아氏에組閣委囑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西班牙大統領자무라氏는 十九日午後七時 左翼共和派의 領袖元首相마뉴엘、마자니아氏에 組閣을委囑하엿는데 同氏는 十九日組閣에成功하엿다 新內閣의 主要한人物은如左하다

首相 마뉴엘·아자니아

外相 어거스토·하르샤

陸相 마술레將軍

海相 요셉·기라르

藏相 가브리엘·프랑코

【마드리드十九日發電通】西班牙 보르테로內閣 總辭職에 伴한後 內閣組織은 數次首相의 印綬를帶한 經歷을가진 共和派마뉴엘、아자니아氏에 委囑하엿다

話題解說

파國革命

◇ 十七日 파라과이首都 아순숀에 陸軍急進將校團을 中心으로 航空學校 學生 多數와 그란·차코戰의 軍人數十가 突然 쿠-데타를 敢行하야 猛烈한 市街戰으로 全市를 占領한結果 아야라大統領은 他國으로 亡命하고 外相라-드氏는 革命軍에 被逮拘禁되엿다 一面에 革命派는 프랑코大佐를 臨時大統領에 推戴하고 革命政府의 樹立에 成功하엿다한다。

◇ 파라과이는 南米中央奧地에 잇는 面積十六萬平方哩 人口八十五萬에 不過한 一小國이다 파라과이는 隣邦 볼리비아와의 사이에 所謂 南米百年 戰爭이라는 그란·차코를 圍繞한 紛爭이잇는데 一九三二年以來 차코戰爭이 本格化함에따라 國際聯盟을 斡旋하야 南北米列國에서 그仲裁에 努力하엿스나 失敗를거듭하다가 昨年六月十二日 알젠틴首都 부에노스아이레스會議를 通하야 休戰和條約의 成立을 보게되엿다。右講和條約에 對하야 파國民一部 特히 出征將校團에 不平이 滿滿하엿든 바에 米國로-대統領의 所謂 孔米會議招請狀이 右平和協定을 是認함과 如한 態度에 나왓슴에 不拘하고 政府當局이 此를 即時 受諾한것이 今回革命의 一要因이 되엿엇다。

◇ 차코地方의 爭奪問題는 一八一一年 파라과이國 獨立當時부터의 問題니 만치 그內容이 複雜多端하야 이러한 紛爭에서 解決하기는 어려우나 볼、파兩國이 모다 그 初期에 잇서서는 차코地方을 그다지 重大視하지 아니한것이나 前世紀末에 이르러 兩國이모다 强大한 隣邦과 戰爭을하야 敗戰結果 國土를 만히 일허 그란·차코地方을 이에 重大한 生命線으로 보게되엿다。

◇ 볼리비아는 칠리-國과의 戰爭(一八七九年부터 一八八一年까지의 太平洋戰爭 War of the Pacific)에 依하야 다크나、아리카兩地方을 빼앗기고 파라과이는 一八七〇年頃부터 約五年間 부라질 우루과이 알젠틴과의 戰爭에依하야 亦是 廣大한 國土를 빼앗기엇다。그리하야 파、볼은 면저 차코地方에 侵入하고 同地方領有의 目的으로 山間奧地에 要塞를 築設하고 파라과이河流域에는 鐵道、農場、其他文化施設에 注力하엿슴이니라 一九三二年以來의 차코戰爭은 終始 파國이 優勢를 示하여오던것인데 昨年平和協定內容은 파國에 制約的條件을 賦課치 못하엿다는데 一部國民의 不平이 이다。따라서 今回革命政府의 樹立은 一時安定되엿던 차코問題를 再燃식힐것으로 보인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新任入京한 … 川村博氏를 二十日午後零時半부터 總督官邸에招待하야 午餐會를 開催하엿다

▲白耳義總領事館一行三名 二月二十一日 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

▲篠田治策氏 (李王職長官) 二十二日京城驛發東京

八面鋒

◇ 一千年後事를 생각하야 三十萬圓의 信托를 請한 富豪가 잇다。

◇ 地球가 限命할날이 올것을짐작한다면 財産을 火星으로옴겨야할것아닌가。

◇ 一口百萬圓의 保險料로 貯蓄銀行과 朝鮮火災가 契約을햇다고。

◇ 큼직큼직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것만으로도 가난한사람은 滿足하라는말인가。

◇ 選擧結果는 보기도前에 「캐스팅·보-트」를 누구가 쥐느냐가 問題。

◇ 小勝大의原理가 通用되는동안에는 政局安定이란 容計。

朝滿間의三戰役

-己未役以前의形勢- (三)

文 一 平

壬辰亂에 려진 宣祖二十五年 가을이라 建州衛女眞이 義州行在所에 使价를 보내여 軍士를請고와서 援助하겟노라自請하엿다 그러나 朝廷에서는 後患을 念慮하야 드듸여 婉辭로써 拒絶하고 말앗다 한다 建州衛女眞은 이때 淸太祖 奴兒哈赤(누르하치)가 일어나 鴨綠江저편에서 風雲을 부르지즘새 酋氣滿滿한 그는 스스로 國家兵擴속에 뛰여 들려고 하엿다 女眞건너는 豐臣秀吉이가 挑起하야 一擧에 朝鮮을 統合하고 다시 그勢力을 모라 大陸에 달려들매 半島를 第一線으로 삼아 朝明對日本의 三國戰爭이 버러진 판이다 「놀하치」는 이웃나라의 七年동안 慘酷한 戰禍를 바라보면서 女眞의 諸部를 뭉기여 建國의 土臺를 닥갓다 그리하야 壬辰亂이 끗나든 宣祖三十一年 戊戌에 가서는 「놀하치」의 攻略이 松花江上流에 미처고 또 다시 東進하야 豆滿江外를 完全히 征服함에 이르니 이때부터 그의 勢力이 갑작이 强盛해젓다 그러나 이와同時에 朝鮮이 東北으로 西北으로 威脅을 밧는것이 增大해진것도 事實이다 光海初에는 「놀하치」가 벌서 建州衛의 一酋長이 아니오 儼然히 滿洲의 王者이엇다 그 領內에는 長白山에서 發源하는 三江의 流域을 包括하엿고 그麾下에는 諸部에서 選拔해온 數萬의 士卒을 擁有하엿스며 그네로써 다시 有名한 八旗制를 編成하매 號令이 嚴明하고 規律이 整齊하야 土耳其軍의 精華라고 자랑하는 「아니자리」보담도强兵이엿섯다 女眞이 滿萬이면不可敵이라 하거니와 지금 「놀하치」로 말하면 滿萬의 몃갑절을 가젓스니 그勢를누가 꺽그랴 그러나 그가 光海八年에後金國汗이라 自稱한以來 朝鮮에上表할때는 오히려 後金國奴才라고 自謙한것을보면 歷史的關係란 이러케도 무서운 것이다 다만 이때朝鮮이 그를 危險視하니만치 그도朝鮮에 對하야 內心으로 警戒하면서도 機會가 잇슬적마다 好意를 表示한것은 다름이아니라 「놀하치」의 뜻이 遼左에 잇스므로 아못조록 朝鮮에 失和하지 안흐려고하엿슴이다 明代의滿洲는 山海關以東에 잇서서 開原以南 旅順口까지를 明의直轄地로 맨드러 遼瀋을 싸아 그邊墻外에 사는 女眞諸部와 境界線을 삼엇는데 壬辰亂後 明의遼東邊備가 弛緩해진 틈을 타서 「놀하치」는마침내 光海十年戊午에 明의撫順城을 侵入하야 이땅을 攻略하고 宣戰理由로 七大恨事를 發布하야 公然하게 明에對해서 挑戰함에 이르럿다 撫順失陷은 실로 意外의 警報이라 이警報를 듯고 明廷은 놀라고도 憤慨하야 더혀 大兵을 發하야 後金(淸)을 膺懲하려할새 一方으로 國中에命令을 내려 動員準備를 세드르며 一方으로 朝鮮에 書을 보내여 出兵協助를 請하엿다 朝明이 合作하야 女眞을 夾攻한것은 世祖때에 그先例가 업는바 아니나 그때와 이때는 對內對外로 形勢가 크게 다르다 對內로보면 一은 壬辰亂後 極度로 疲弊하야 이를테면 重病한사람과 가태여 積極行動을 하기 어려운바요 一은 光海께서 庶出이니 만큼 永昌推戴의 密謀가 잇슴을 來針席우에 안즌듯한 不安을 느끼는터임으로 大擧出征하기 어려운바요 對外로 보면 一은 女眞이 我國과 가장近隣일뿐더러 兵馬의精强함이 完顏氏에 나리지 아니며 「놀하치」의 傑冠함이 李滿住에게 견줄바 아니니 함부로 덤비기 어려운바요 一은 明國도 차차衰運에 잠겨 녯날明國이 아니므로 天下의兵을 움즉여 女眞을 討伐하드라도 必勝을 期하기 어려운바다 이는대개 光海때가 世祖때와는 內外形勢가 크게 달라진 所以다 그렁으로 이形勢를 잘아는 光海主 께서는 이미 明의 出兵에 對해서도 疑懼의 念을 가진 터이더구나 朝鮮의 宰臣에 이르러는 애초부터 反對한는바다 그러나 外交上 重大事임으로 光海主 께서 廷臣의 公議에 부치여 그結果를 上奏하라고 命하엿더니 거의 그全部가 無條件參戰을 主張하엿다 그理由는 再造의恩이 잇는 父母의邦이 犬羊에게 侮辱을 當하는데 臣子의義에 赴援하지안홀수 업다는 名分論이다 이럴때는 政治의 實際利害보다 名分論이 흔히 制勝하게 되는것이 李朝政治史의 特色이다 그리하야 畢竟 己未參戰을 보고야 말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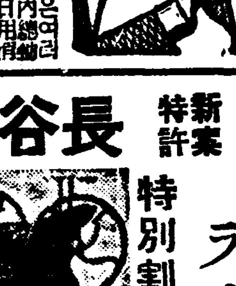
植民地開放論을 外務當局主張

再分割論은不可能視

【東京電話同盟】最近世界各方面에 나타난 植民地再分割論에對하야 昨年九月 米國호-스大佐가 同論을 發表한 當時는 單純한 理想論으로 輕輕히 取扱하엿스나 그後 各方面에 反響이생겨 英米有力者에 依하야 論究를 거듭하게되엿는데 同論은 압서國際間通商障害를 緩和할것이라는데 그때문에 世界經濟會議를 開催할것이라는가 等의 多少具體的意見도 나타나므로 日本으로서도 此等問題에對한 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外務當局은 于先本問題에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다시情報 通商條約等의 各局部의 聯合協議會를開하야 考究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에對한當局의所見에依하면 植民地再分割論乃至 原料資源의 自由獲得論이 現在植民地를 領有한 各國의利害에 影響되야 實行上 그實現은 거의不可能으로 豫想됨에反하야 植民地開放論은 植民地領有國에의 影響도 比較的적고 또 萬若 이것이 實現되면世界經濟의回復을 顯著히阻害하고잇는 各種通商障害를 緩和하게될 것이므로 外務當局으로서는 植民地開放論으로서 進行할方針이다

000290

조혼家庭工業
高尚한社會의意義잇는大事業提唱
偉大한二工業依大賴합 돈버리
第一 … 第二 …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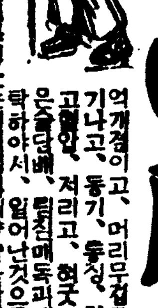
一回効散

頭痛
齒痛 과
頭痛 에
神經痛 에도
效力이 速하고 持續잇는 一回効散은 特效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 最近에는 評판이 상당하게 되엿다
現品보다 試用하시라
本舖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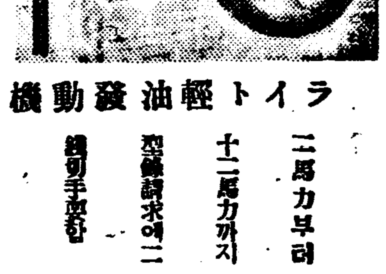
呼吸器疾患의 豫防과治療에는
네오톤토닉
柳韓洋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大和町

金銀福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へイゼウ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高血壓 神經痛 中風 腦病 喘息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特別割引 發賣開始

製麵機中의霸王

ライト輕油發動機
二馬力부터 十二馬力까지
特約店募集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元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朝鮮販賣元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八二四三番

財團法人 協成實業學校商工科生徒募集
▲商五十名、工二十名
▲出願三月二十九日迄
▲試驗三月三十、三十一日
▲京城府樂園洞一八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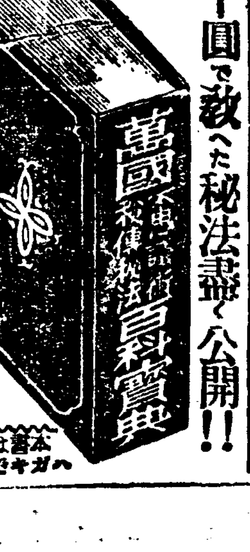
培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八十名
出願期日 三月九日限
試驗期日 三月十日、十一日兩日間 (京城貞洞三四番地)

京城保育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五十名、選科生若干名
◇願書提出期限 三月二十一日까지
◇試驗期日 四月一、二兩日
◇詳細來問 (京城淸進洞一八七)

金泉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慶北金泉郡)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五十名
試驗期日 三月八、九兩日
願書提出 二月二十九日까지

財團法人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京城)
第一學年 約百名 (詳細要照會)
出願三月十日限
試驗三月十一、十二日

はれやか 하레야가
一服智謀百出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書を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能秘法寶典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發賣元 現代出版社

콜럼비아 포-타블
本器를試聽하실時 最近 四大힛트盤
「希望의鐘이운다
落花岩의千年夢
술주정뱅이
빗나는靑春」을 들어주십시오
本器의特點은 「音이조코、가볍고、갑이싼性能器」입니다

25.00

今曉·市內六處에出火·放火續出

大和町洗濯所에火災
外交員一名燒死
乾燥室에서發火一棟五戶全燒
二十日曉頭의慘變

이십일 오전두시사십분 시내 대화정(大和町)일정목 십구번지 구의서(具義書)(三六)의 세탁소에서 불이 이러나서 줄행랑한채에 다섯집을 몽땅 태워버리고 가튼 네시사십분에 소방대의 출동으로 겨우 불을끗는데 그동에 그집외교원 리용봉(李容奉)은 그만불에타죽고 마럿다

불난원인은 그세탁소 건조실(乾燥室)에서 옷을 말리려고 불피여둔데 걸어노핫든 빨래가지에 당겨부럿기 때문으로서 손해는 팔천원가량이라한다 (사진은 참변현장)

雨水日에炎魔長安을呪咀

保險證書꺼내려 火焰속으로突入
그만天井에깔려서慘死

불이 한참 맹렬하게 타올라서 그집전채를 불시길이 에워싸고 잇슬 막그때 그세탁소 외교원 리용봉(李容奉)(二五)은 자기주인의 책상설합속에 드러잇는 화재보험증권──그액면도 구만일천원──을 꺼집어내려 뛰여드러가서 잠거잇는 그설합에 열쇠를 맛끕으려할때 맹렬한불시길이 사정업시 휩싸서 꼼작할수업는데다가 불에타고남은 천정이 문허지며 그만 그자리에서 타고 깔리여 무참하게도죽고 말엇다!

夜陰을탄怪放火魔
隣洞五處에放火
警官과消防隊를宛然히弄絡

하룻밤 동안에 서울 한복판에서 닥치는대로 인가에 불을노코 다니는 방화광(放火狂)이 잇서서 소방대와 경찰을 한참괴롭게한사건이 잇섯다 십구일밤 열한시경에 시내수은동(授恩洞) 일백삼십칠번지 목공(木工)김순익(金順益)의 초가집에서 불이 낫다는 급보에의하야 소방대와 경찰이 미처현장에 출동하기도전에 계속하야 그동일백이십이번지 리명오(李明五)의집에 불이붓고 또그동내 리갑승(李甲承)의집에서 불이부터잇시 경찰과소방대가 두서를 잡지못하엿는데 어던방화광(放火狂)이잇서서 닥치는대로 불을노코 가던것으로 계속하야 부근초가집에 불을노아서 오전다섯시 이십분경에는 또 돈의동(敦義洞)일백십번지 림정렬(林貞烈)의집에다가 불을노앗는데 소관종로서에서는 영정(永井)사법주임이 게원을 독려하야 즉시 수사진을펴고 범인을 엄탐하엿다

火災續出로 警察部各署를督勵

요사이 부내에 화재가 자질뿐아니라 십구일밤부터 십구일새벽까지 종로경찰서관내에는 한두간식 사이를두고 다섯곳에나 불이낫는데 방화의 혐의가농후함으로 경기도경찰부보안과에서는 부내각경찰서에 통첩하야 화재사건에 대하야 일층조사를신중히하는한편 원인을 조사하야 방화한혐의가잇다면 철저히 범인을 수색하라고 엄명하엿다한다

大邱〃카페〃에火災

십팔일오후여덟시 이십분경에 대구부전정(大邱府田町)이십칠번지 태합관이라는 『카페』근등청일랑(近藤清一郎)(四五)방에서 불이나서 삽시간에 불길이 근방에퍼저서 엽헤잇는 영락관 신흥관등의 활동사진관에서는 대혼잡을 이루엇스며 소방대의 출동으로 약이십분만에 겨우사층만 타버리고 진화되엿다 손해는약 삼사백원이라하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仁川에도火災 五戶를全半燒

【仁川】지난십구일오후십시삼십오분 본정(本町)삼정목 왕종금(王宗金)(三四)의 등의지점에서발화하야 전긔상점을전소한후 부근주택사호를반소한후 약일시간만에 진화하얏다는데 발화원인은〃스토브〃에서동건실에불이당긴것이라는데 손해는약오천원에달하리라하나방금조사중이라한다

有力한嫌疑者逮捕
人家에불부치든現場을發見

오전다섯시경에 시내 의선동(義善洞)일백육십일번지 조모(趙某)의 초가에 막석양으로 불을노흐랴는 조수남(趙秀男)(二七)一假名―을 현장에서 오현동(吳鉉慶)순사가 발견하고 곳본서로인치하야 엄중취조하는중인데 그가 거진 진범인것가트며 일정한직업이잇는 청년으로 극도의신경소약에 걸려잇다고 하는바 게속하야 자세한 내용을 엄중추궁하고잇는중이다 다행히 불부튼집은 모다곳발견하고 진화되여 손해는적엇다고한다

京釜間臨時列車運轉

철도국에서는 경부간(京釜間)손님이 아연히 증가하고잇슴으로 그완화책으로 삼월일일부터 경부간 부산행임시 급행렬차를 당분간 운전하기로하엿다는데시간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京城發 午後二時五分
釜山着 午後十時十分

서울兩班은되엿스나 뒤ㅅ살림이큰걱정
廿萬만新府民中納稅者는겨우千餘名
거의가貧窮에떠는사람들

오는사월일일부터 경성부에 편입되는지역의 주민은 약이십만인이다 소화구년말의 경성부 조사에의하면 조선인 십구만이백여명 일본내지인 륙천팔백여명 외국인 륙백팔십여명등으로 합계십구만 칠천칠백여명 이엇는데 일년동안에 이십만인을 초과하엿슬것은 틀림업스리라고보고잇다、이들은 지금까지 군부의백성으로잇다가 조선의수도인 대경성의 부민으로 격이놉하진다고 세상에서는 말하고잇스나 그들의 생활실질에 잇서서 하등변동이 잇슬것은 못됨은 더말할것도 업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상태로보면 경성의 변두리에서 살고잇는만큼 생활상태가 대개 빈곤한은 짐작으로라도알수잇는것인데 이제 그생활상태를 밝히는 증거로 납세인원의 상황을보면 경성부 도시계획에 조사는 일천이백명에 불과하니 그들의 생활상태가 얼마나 빈곤한가를 알수잇다

그런데 압흐로 린접지가 경성부에 편입되며 일반시설이 점차 조와지며 도시의리용이 증대되면 자연 지까가 놉하지며 그들의 생활근거지는 점차동요를 보게될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그들중에는 국유지나 사유지의 공지를 빌려잇는것도 만허서 머지안흔장래에 당연히 주거지의 공황을 만날것이 적지안흐리라고 관측되고잇다

勞働階級社關係者 金致廷 東京서永眠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일명노동계급사사건(朝鮮共産黨再建鬪爭協議會─一名勞働階級社事件)피고 김치정(金致廷)(二)은 오래동안 옥중에서 신병으로신음하다가 재작년시월에 집행정지로 동경부립송택병원(東京府立松澤病院)에 입원하야 약일년반동안 치료중이든바 지난사일 오후에 동경시 삼병구 송목정(東京市杉並區松木町)일천일백사십륙번지 리북만(李北滿)씨방에 나와잇다가 동칠일 오전영시경에 영면하엿는데 장의는 지난십일오후에 거행하엿다한다 그는 평북박천군남면맹중리(平北博川郡南面孟中里)에 출생하야 일천구백이십칠년에 상해(上海)로 건너가서 중국국민정부직할(中國國民政府直轄)의 상해비행창(上海飛行廠)의 륙군중위(陸軍中尉)로근무하야 북벌군(北伐軍)에 가담하엿고 중국한인청년동맹(中國韓人青年同盟、中國人共産黨上海市委員會)등에도 관계햇스며 일천구백삼십년일월경에 조선공산당재건과 밋일본공산당과의련락운동의 비명을띄고 동경에잠입하엿다가 검거되엿든이라한다

超速消防自動車 〃싸이드카〃와衝突
消防手三名全治二日의輕傷
大和町火災의副產物

전긔 구의서의 세탁소에서불이 이러나자 이급보를 접하고 달려가든 소방자동차가 남산정(南山町)쪽으로부터 명치정(明治町)으로 요란스러운 『싸일렌』소리를 울리면서 줄다름질처서 본정(本町)이정목 촌목(村木)시계점압을 달려가다가 명치정 드려가는 골목장이 어구에서 때마츰 계림(鷄林)의택시운전수최한상(崔漢祥)(二一)이가 운전해가지고 가든 싸이드·카─를 드려바터서 『싸이드·카─』는 압바키를 소방자동차는 『펜더─』를각각상했는데 이통에 소방수 김흥석(金興石)(二七)외 두명은 사흘 가량치료바들 상처를 입엇다 그러나 요사이 소방자동차의 무궤도다름질통에 자조 이러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지난번 소방협회(消防協會)로부터도 주의를 준바이엇슴에 불구하고 또 이가튼 사고를 이르킨것은 넘어나 소방차운전수들이 지나친 속력을내이는 부주의 때문이라해서 시민의불평이 놉하가고잇다한다

人生暗路사정업서 내자식죽인女子
◇法廷에우는시드른母性愛

산아제한(産兒制限)의 필요를느끼게하는 법정에 나타난 범죄사실─경남 통영군 이운면두모리(統營郡二運面杜母里)리모(李某)의 안해 박사금(朴四今)(三五)이라는 서른다섯살 먹은 녀자는 자긔자식을 죽엿다는 죄로 이십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일년륙개월로 판결이 확정되엿다

그는 늙은 시부모와 열한살먹은 장남을 비롯하야 아들네명을 데리고서 남편의 생선장사 수입으로 근근히 곤궁한 생활을 해왓스나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호구를 해가기가 어려우므로 자긔도 남의일이라도 해주고서 삯을바더 생활비의 일부분이라도 보태고십헛스나 세살먹은 어린자식때문에 수족이 억매여서 엇지할도리가 업슴으로 그를죽여버릴 악착한 생각을 가지게되야 작년칠월이십일 오후여섯시에 집안사람들이 업는 틈을타서 다섯살먹은 셋재아들을 시켜서 그어린아이를 뒷간똥통에 미러트려너어 죽여버렷다 한다

부산(釜山)지방법원에서나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나 모다 그의정상을 가엽시생각하야 특별히 징역일년륙개월을 언도하엿든것인데 그것을 불복하고 고등법원으로 상고(上告)하엿스나 그이상더 작량(酌量)할 여지가 업다하야 상고기각(上告棄却)의 판결을하엿다

鄕愁시른片紙에어린 슬픈〃그女子의一生〃
本籍地차저온搜査願

수천리타국 만주에서 그리운본적지를 찻고잇는 고독한 젊은 녀자─수일전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에는 멀리 만주국빈강성오상현성내동대가(濱江省五常縣城內東大街)요리점 취산(醉山)이라는데서 고용사리를 하고잇는 박순덕(朴順德)이라는 스물두살먹은 젊은녀자가 자긔의본적지를 차저달라는 편지 한장이 전해왓다 그내용을 보면

그는 경기도개풍군(開豐郡)에서 출생하야 어릴때에 부모와 함께 서울의주통(義州通)일정목일백사십륙번지에 이사와서 살엇는데 아버지 박모(朴某)는어릴때에죽고 어머니 안영자(安英子)도 소화칠년에 마저 죽어버렷스며 자긔는 어릴때에 어느사립학교삼년급 까지 다녓든데 어머니가 죽은뒤 재산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치루고 자긔는 시내본정오정목에 잇는『사쿠라』라는『카페』에서 녀급노릇을하다가 금년정월에 전긔 오상현으로 가서 잇는중인데 본적지를 조사해달라는것이엿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방금 그의전주소이엿든 의주통일정목에 가서 조사해보앗스나 그러한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엿다한다

貨物車斷崖서墜落
二名即死、運轉手는重傷

【新義州支局特電】지난십구일오후세시반경에 평북삼천이십사호 화물 자동차를 운전수 변호준 오북면오하리(新義州郡吾北面吾下里) 전갑룡(全甲龍)(三)이가 운전해가지고 달려가다가 동군대평면상평리(大平面) 국사령(國司嶺)에서 압호로부터오든 승합자동차를 맛나이것을 피하려고할때 눈때문에 미끄러저 노피륙십오『미돌』이나되는 낭떠러지로 떠러저서 거기탓든 벽동군벽동면이리(二里)이원용(李遠鎔)(二七)과 일리(一里)유영진(劉永珍)(三二)은 즉사하고 동면일리(一里)왕내복(王來福)(三)과 운전수는 생명위독이라고한다

運動〔界〕
올림픽招致 冬季大會放棄
歐洲小國은反對

【가르밋쉬·파르텐키르헨 同盟發】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는 未曾有의 盛況裡에 終了되엇는데 大會의 觀衆 延人員數는 實로百萬人에 達하는데 이로인하야 벤뜨할뿌─로─의 使用人 其他二百名의 常備乃至臨時傭人이 徹夜로準備에 盡力하고 記者係에서는 英、佛、西班牙、和蘭의各國語에通曉한 男女가 每日早朝부터 밤늣게까지 努力을 繼續하고잇섯다 萬若日本에서 次期大會를開催한다면 이點도크게 考慮할 問題일뿐아니라 宿舍와 其他設備를 考慮하면 冬季올림픽은 到底히獲得하기까지에는 周到한準備가必要할것이다 現在의情勢로는 冬季大會는 큰難關에 逢着하고잇다 例를들면 芬蘭이라든 西伯利亞鐵道를거처서 日本에到着하기까지 最短四週間이나걸릴것은 勿論이요 練習期間이잇서야할形便임으로 往復日數를加한다면 到底히實現性이업다는意見이 最近各國間에有力하여젓다 이로因하야 日本은夏季大會를確實히獲得하려면 最初부터冬季올림픽을放棄하고 誘致運動을함이 賢明하다는 意見을 各國代表들이 말하고잇다 그러나 日本의 競爭相對國인 芬蘭이依然冬季와 夏季兩大會獲得을目標로 猛運動을 繼續하고잇스며 一方諾威도 冬季大會開催를 運動하고잇슴으로 各國招致運動은 到底히 日本에게 有利한條件이되리라고 보기드나 何如間 歐洲小國들은 經濟關係가 가장큰問題임으로 日本開催를 反對한다 日本으로서는 冬季올림픽을 放棄한다는것을 明白히함을 要할것이며 杉村駐伊大使가 오슬로會議때에 『日本은올림픽特別點을 提供한다』는 約束을 前提로 夏季大會開催를 論하고잇다

『그라이더』三機注文

『그라이더─』(滑空機)의 初練習을 來四月에 京城에서 開始한다하은 昨秋創立한바이니와 朝鮮『그라이더─』俱樂部에서는 飛行協會朝鮮支部로부터 寄贈한 『그라이더─』二機를 二十日 福岡市前川『그라이더─』製作所에 注文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俱樂部의 維持費와 其他經費는 遞信局民間航空獎勵金中에서 補助를 바들것을 申請하기로되엿다

世界一의『럭비』팀 英國本土서三敗

世界第一을 자랑하는 新西蘭의 『올─블랙스』팀은 今冬第四次로英國本土遠征을한바 對戰數는實로二十八試合에 二十四勝、一無勝負三敗의成績이다 全試合을通하야보면 新西蘭軍이 實力이低下한것이아니라 英國本土팀들이 例年以上으로躍進한 結果이라고본다 그中『잉그랜드』와『웰스』의F W의『테크니크』『빽』의 全面的으로 巧妙한것 또는 精神的、肉體的인 素質은 十年前新西蘭과對戰當時의팀과 比較하면 面目一新한것이잇다(同盟動信)

싸─키─隱退

【紐育發同盟動信】前世界重量級拳鬪選手權者잭크·싸─키─君은 再次 王座를 目標로하야『마사추─셋』州에서 그復活第一戰인 『에데이·헌스톤』選手와의 對戰에 敗北하야 酷評을 방은것이 큰原因이되여 今後로는 拳鬪界로부터 不歸로 隱退할수밧게업시되엿다 同君은 一九三三年에 『마쓰·쉬메링』을 判定으로 擊退하야 選手權을 獲得하고 그翌年에는 『뿌리모·카르네라』君에게 KO로 敗退한 選手인데當年三十二歲로 拳鬪生活에서 어든 그의財産은 二十萬圓에 達한다고한다

京畿道會開會

십일년도 예산안을 심의할경긔도회(道會)는 이십일오전열시부터 경긔도청회의실에서 열리여 부영(富永)지사의 도내일반상황긔타의 연술과 대도(大島)내무부장의 예산안설명이 잇슨다음 예산안을 연구키위하야 이십일오후와 이십일일은 휴회하고이십이일오후한시부터 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동열한시사십오분에 폐회하엿다

殖銀行員被逮

조선식산은행(殖産銀行)원 원전모(原田某)(三)는 그은행돈 삼백여원을 횡령해가지고 멀리만주로 도주하다가 수일전에 신의주 긔차가운데서 이동경관에

天氣豫報

低氣壓은 沖繩附近方面과 四國海上에잇고 高氣壓은 北中國으로부터 朝鮮에 퍼지며 千島方面은 氣壓이낫다 滿洲朝鮮은개이나 南朝鮮은 흐린다 新潟地方以北의 西日本은 風雪이 조금심하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개이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明日京城地方은 日氣가 조으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二度九
昨日最低 零下九度一
今朝最低 零下十度二
今朝正午 零下三度九

天一靈神丸 効能 食滯·吐瀉 霍亂·暑滯 消化不良 酒滯·胸滯 氣鬱·逆上 關格·腹痛 眩暈·頭痛 藥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二十錢

流行歌 江南夢想曲 朴英鎬 作詞 李基英 作曲 崔南鏞 唱
流行歌 꼿필때 金陵人 作詞 李基英 作曲 盧碧花 唱
流行歌 松花江 朴英鎬 作詞 (八一九七)
流行歌 나룻배 元山人 作詞 姜石燕 唱 (八一九七)
雜歌 山打鈴 金秀香 (八一九六)
新民謠 想思怨 李山紅 (八一九六)
俗謠 박타령 金福成 (八一九五)
雜歌 방아타령 金福成 (八一九九)
雜歌 金福成 (八一九九)
南道名唱 보렴 朴道一 새타령 李蘭香 (八一九八)
3月新譜 太平레코─드

皮膚病에 外用常備藥 一 二 三 全國有名藥店에잇슴
流線型美貌를 자랑키前에 麗人이여 皮膚病의 解消는 如何?
主効 마른버짐、종기、습진、옴、얼룩이、검버섯、독、에테、부스럼、찰상、동상、화상、구두에실한데
NO.17

藥種商 受驗講座 內容見本要二錢切手必添送 京城冷洞一八三 藥種商受驗學會

傑作盤을網羅한 三月新譜 (二月廿日發賣) 追憶의幻影 專屬 蔡奎燁 吹込 콜럼비아레코─드

痔疾은 오세로 痔疾藥으로 全國各藥店에有함

洒泚水와落花岩 全四幕 二月十八日부터 晝一時夜七時 (晝夜二回公演) 東劇座第二週푸로그람 東劇文藝部潤色 時代劇
우리의史藥은悲絕、慘絕、妖艶하게 물드린 가장잇지못할史劇의산舞臺이외다 그舞臺그대로를東劇舞臺로옴겨놋코東劇座올스타─캐스트의熱演의果然얼마나壯嚴豪華할것이릿가?
李雲芳作 人情悲劇 허무러진靑春 一幕 靑春은人生의꼿이외다 靑春업는人生은 꼿업는들판이외다 靑春이허무러지는그곳에 그얼마나 큰 란人生의悲劇의숨이잇슬것이랴
花山學一作 喜劇 一號 變求 一幕 잇지못할動物이여 『네일흠은男便이니라』이警句를푸는이演劇에서 여러분은 그엇더한波瀾에싸힌 夫婦劇을보게될것인가? 腰折、抱腹、破腸!
竹添町一ノ 電光3二五一 東洋劇場

림질 ネオチリン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獎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獎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患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說明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電淡路呼一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李光洙 金東仁 小說集 定價送料並 五十四錢
中央佛敎專門學校敎授金泰洽先生著 聖異次頓의最後 定價送料並 十二錢
田榮澤先生序崔仁化先生編 世界童話集 定價送料並 二十七錢
崔仁化先生編 世界笑話集 定價送料並 二十七錢
發賣所 京城府慶雲洞九六 振替京城四二七四番 大衆書屋

당채색 (呈送報證) 京城府鐘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〇四番 振替京城八〇二四番

當選謝禮

今般務安郡道會議員補缺選擧에當하야 有權者諸氏의後援으로 當選되엿삽기玆에紙上으로感謝를表하나이다

昭和十一年二月十七日

金哲鎭

異次頓의死 【100】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그럼 말슴은 다 끗난것이어니올고」

하고 알공은 마치 지금까지는 농담을 하엿스나 인제부터 정말 긴한 말을 한다는 모양으로 무릅으로 걸어 선마로앞에 바싹 다아안즈며,

「이건 참 엿줍기 황송한 말슴이오나」

하고 선마로의 눈치를 [illegible] 선마로는 공목과 알공이 [illegible] 감안에서 하엿다 [illegible] 는 성급한 마음에 [illegible] 빼여서 두 [illegible] 목아지를 후려갈기고도 시펏지마는 꾹참고 잇다가,

「무슨 말이오?」

하고 잠잔케 뭇는다。

「이건 참 아뢰옵고 황송한 말슴이오」

하고는 공목을 돌아보며,

「여보시오, 공목이손。우리가 선마로이손께 모든것을 바친바에 이런 말슴을 아니 엿줄수 업지아니하오?」

하고 눈을 깜작깜작한다。

「무슨 말이 또 잇소?」

하고 공목은 아직도 불쾌한 비치 가시지를 아니하엿다。

「아, 저, 그, 상감께서 우리 선마로이손께 대해서 하신 말슴말요。참아 그 말슴을—」

하고 알공은, 고개를 선마로에게로 돌리며,

「이몸은 참아 그 말슴을 엿줍지못하겟소」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안는다。

「이 사람! 무슨 말이오? 어서 하오」

하고 선마로가 초조하여서 재촉한다。

「아니오」

하고 알공은,

「이 말슴만은 참아 못 엿줍겟소。이손께서 이 말슴을 들으시면 설마 상감마마께서, 이손께는 친 형님으로 끔찍이 가르신 상감마마께서 그런말슴을 하실 리가 잇느냐? 이것은 알공 네가지어내인 말이다, 하고 칼을 뽑으실것이오。또 만일 이몸의 말슴을 고대로 미드신다 하면 이손께오서 이말을 듯고 참을수 업다 하시와 칼을 빼여드시고 곳 궐내로 뛰어들어가실것이니 어느편으로 보아도 끔찍끔찍 한 일이라, 참아 이몸은 그 말슴만은 못 엿줍겟소。안 그려오, 공목이손? 엿줄더이면 차라리 공목이손이 엿주시오」

하고 한걸음 떼 뒤로 물러안는다。

알공의 이 모양에 선마로는 더욱 초조하여한다,

「무슨 말이오 하오」

하고 선마로는 처음에 알공을 보고 다음에는 공목을 본다。

그래도 알공은 고개를 돌리고 공목은 알공에게 대한 분으로 아직도 코를 벌룩거리고 잇서서들이다 말이 업다。

「알공! 어서 말을 하오」

하고 선마로는 이번에는 어성을 놉혀서 명령적으로 웨친다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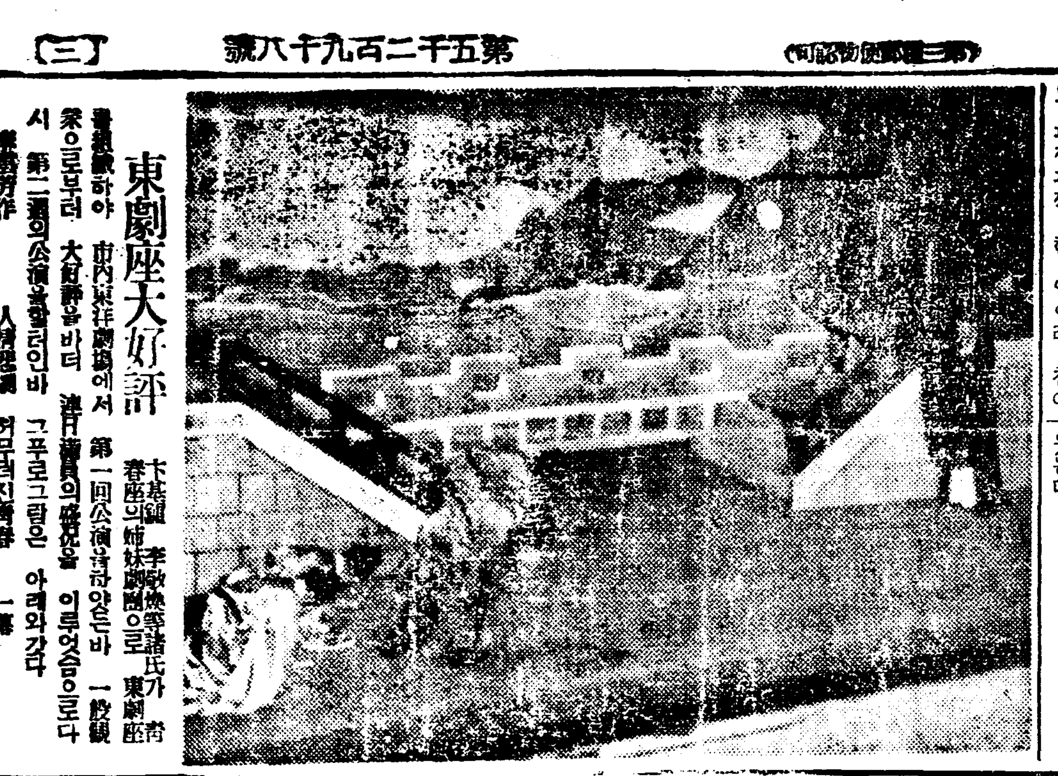
하고 알공은 깁게 한숨을 쉬이면서,

「원 이 말슴을 참아 어찌옴긴단 말인고? 웨 아까 궐내에서 나올 때에 이몸이 고대 죽어버리지를 아니하고—그리만 되엇더면 이런 말슴은 아니 엿주어도 조흘것을。그러면 아뢰오리다。어차피 이몸은 선마로이손께 바친 몸이오니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이손마마 마음대로하시오。그러면 아뢰오리다」

하고 한번 기침을 하야서 목을 다듬은 뒤에,

「원체, 이몸이 상감 하라시는대로 부처회상에 절을 하고 불도도 밋겟노라고 하고 무엇이나 상감 뜻을 마른것은 상감 속을 뽑아보자는 뜻이란 말슴이오。상감께도 이몸이나 공목이손이나 다 선마로이손 편인줄 아시는 바에 우리를 보고 참말 속을 말슴하실 리가 잇소? 그래서 마치 상감편이 된드시 부처회상에 절을해라 하여도 예, 불도를 닥아라 하여도 예, 그랫단말슴이오。했더니 어수룩하신 상감이 거긔 고만 속아넘어가서서 속을톡다 털어노흐섯단 말슴이오 상감도 외로우시니까、조정에 신하라는 신하는 대개가 다 선마로이손 편이니까、당신 뜻을맛초아들이는것이 하도 깃브고 고마워서 고만 이알공 이놈헌데속을 쏙 뽑혓단 말슴이오」

하고 알공은 고소한드시 쌕쌕 웃는다。



東劇座大好評

卞基鐘 李敬煥等諸氏가 春座의 姉妹劇團으로 東劇座를 組織하야 市內東洋劇場에서 第一回公演을하얏는바 一般觀衆으로부터 大好評을바다 連日滿員의盛況을 이루엇슴으로다시 第二週의公演을할려인바 그푸로그람은 아래와갓다

東雲方作 人情悲劇 허무러진靑春 一幕

花山學人潤色 時代劇 淸流水와落花岩 四幕

花山學人作 喜劇 一夜醫來 一幕

기침막는藥의欠缺은頭痛과嘔逆일으키는中毒性입니다

그毒性을除去하야安全하게

鎭咳、袪痰力의强한理想的新劑

流感、肺炎、喘息、百日咳에는强心作用잇는本劑가好適

ベルマン (베루만)

主效: 담, 기침 / 천식 / 百日咳 / 感氣기침 / 氣管支炎 / 肺炎기침

價 五十錢 / 一圓 / 二圓 / 三圓五十錢

本舖 月平商會 / 各地藥店에잇슴

眩氣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昔も 今も

效能で賣れる ひふくや (시찌후꾸) ひえくすり (히에구스리)

效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 梅毒淋疾諸毒을除함 / 효능으로 팝니다

藥價 半週分 卅五錢 / 一週分 五十錢 / 三週分 一圓卅錢 / 送料 十錢 / 海外 四十二錢

本家 七ふくや伊藤長兵衛 大阪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七三 · 電南七二九

オセロ (오세로) 로 再逢春

一圓二十 / 二圓 / 三圓五十 / 五圓 / 各地藥店에잇슴

君が代 (기미가요)

白毛染 赤毛染

婦人은于先白毛染頭髮의化粧은君が代로

君が代는 엇더한白毛나赤毛라도 금새에검은빗츠로변하고 毛髮을傷치안코 더욱이머리털이잘자랍니다 一次試用하야보시라

定價 新型 二十錢 / 粉製 四十錢 / 液製 五十錢

德用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습니다

萬一品切時에는本店에請求하시오

東京市淺草區藏前一丁目三番地 本舖 山吉商店 電話淺草(84)二八五八 / 振替東京一九三六七二〇番

二月二十日밤부터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은晝夜二回公開!

新春三大特選名畵大會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日本版! 푸란켄스타인의新婦 怪奇戰慄篇!再度의襲來! 人?狼?半獸怪物의出現! 絶對恐怖映畵! 캄캄한深夜百雷山鳴에서울어오는奴鬼의우름소래! 復讐의魔手는터니果然?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爭劇 砲煙과薔薇 리차드 보레스라부스키氏監督作品 케리 쿠파氏 마리온데뷔스孃主演 南北戰爭最中의이야기! 와신톤市에서 評判이놉흔엇던劇團의主人公 포린女史及人氣女優 게일는北軍의少間諜으로變名하야南軍의本據로! 南軍의間諜 게이라트大尉와사랑! 사랑에는敵이업다 大尉는사랑을爲하야北軍의救援隊가되여서 모-든危險을突破한다음에兩國은平和한新世界를맛어어다!

◇大都映畵社特作映畵 現代劇 浮世春草のめざめ 監督…太田辰三氏 主演…藤間林太郎氏 佐久間妙子孃

豫告=朝鮮映畵=아리랑고개=空中스피드大王=

寧邊桃花洞 電話一三三番 桃花劇場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頭髮은언제나淸艶한潤澤!

빗나는黑髮을언제나保護하며、美麗케하려면 추운때에도 화왕샴푸로써스시라

花王샴푸는 때가잘씻기며、묽이適히 빠지고、短時間에 곳씻게되는 獨特한 美髮劑가 含有되야 頭髮美에 艷柔한맛을 준다

長髮…二回 / 斷髮…三回

一個·五錢

有力百貨店 雜貨店에잇소

YS175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副業本業

自宅で儲かる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僅少한資本으로一家安全하게되는前途有望한일 ◎遠近不問하고副業又는本業으로婦女子에게도便하게되는年中無休永久계속 ◎同業競爭者적고地方에따라獨占的事業이된다 ◎製品은弊店에서永久取引함 ◎素人도可하니說明書는申込次第進呈 ◎見本及案內書無代進呈함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マルハマ紙工業所

電話西六二四〇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務業○勤人學生兩樂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明治(赤罐)コナミルク (가루젖)

母乳代用에最適

使用法簡便

價格은低廉

明治(赤罐)가루젖은 榮養素와비타민類의含有量이만코 또脂肪球는微細하야特別히調製되야잇고 蛋白質은可消化物外에母乳代用品으로써必要量의 粉質이添加되야잇슴으로營養價의 點에잇서서도 極히優秀한哺育品이다 더욱價格는普及을爲하야 當分間新鮮純良乳一合五錢의比로引下하엿다

明治製菓株式會社

半ポンド入 一罐·五十錢

二月二十日부터特別提供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아! 사자 [illegible] 西部의王 [illegible]

爆擊飛行隊 [illegible]

黃金普薩館 [illegible]

[illegible]

電話光三九五 優美館

祝 寧邊支局發展

寧邊絹織物製造業各工場

寧邊城內 寧邊絹織所 振替京城二四一〇四番

寧邊城內 南山織物工場

寧邊郡八院市 龍山共同織物作業所 代表者 蔡希天

寧邊郡少林面燈山洞 鍾山織造工場 主 明濟大

寧邊城內 永昌染織所 主 康斗元

寧邊郡八院市 龍山織物工場 主 蔡洙一

寧邊郡少林面燈山洞 金抱機業所 主 明駿植

寧邊城內 各種織物 [illegible] 寧邊織造工場 主 張學乘

平北泰川郡東面 陽和寺 住持 崔仁昊 會計 朴致善 書記 李宗弼 房主 鄭泰雲

寧邊郡廳

寧邊酒造組合

寧邊城內 寧邊和信連鎖店 主 柳德在

寧邊城內 寧邊農民消費組合 主任 李大善

寧邊郡寧邊面龍浦洞 金仁河

定州郡妙峰山開元寺 住持 李膺璉

平北寧邊郡妙香山普賢寺 各官公署及公私立學校指定 香山旅館 主 金白牛

寧邊崇德學校

寧邊城內 金學俊百貨店 電話十七番

平北龍城郡萬年寺 住持 金龍海

宣川龍山面照峰庵 住持 張起鎔

朝鮮料理 中華料理 訪花亭 主 鄭順愛 妓生 金玉珠 柳彩玉 申花仙 崔山月 李彩鳳 [illegible] 電話四十一番

朝鮮料理 中華料理 花然館 主 洪成默 妓生 鄭永春 [illegible] 文花仙 [illegible] 電話六番

朝鮮料理 中華料理 新興館 主 吉利弘 妓生 裵景心 康月仙 康蓮花

朝鮮平北寧邊城內 平安精業社 電話寧邊一九番 振替京城二三四七二番

寧邊公立農業學校 職員一同

寧邊郡守 [illegible]

平北熙川郡新豐面普賢寺 住持 張性峰

熙川郡北面 [illegible] 國一金鑛事務所

寧邊郡妙香山普賢寺 共榮商會 主 夜辰奎

熙川郡東倉面 [illegible] 住持 權日明

定州郡 [illegible] 住持 金瑤鏡

博川新豐山面天皇寺 住持 李蒙惺

寧邊警察署 月林警察官出張所 職員一同

寧邊醫院長 許希泳

入院醫院長 吳學晋

妙香山驛前 大塚義萬

寧邊郡妙香山上院庵 院主 尹舜峰

雲山郡白碧山見性庵 住持 李玄鏡

熙川郡北面三峯庵 住持 朴圓明

博川郡東面 [illegible] 住持 李光淳

寧邊郡八院面天德洞 金貫吉

寧邊 [illegible] 妙香山驛前 香山百貨店 主 宋[illegible]

妙香山驛前 有志 金[illegible]

妙香山驛前 [illegible] 妓生 李春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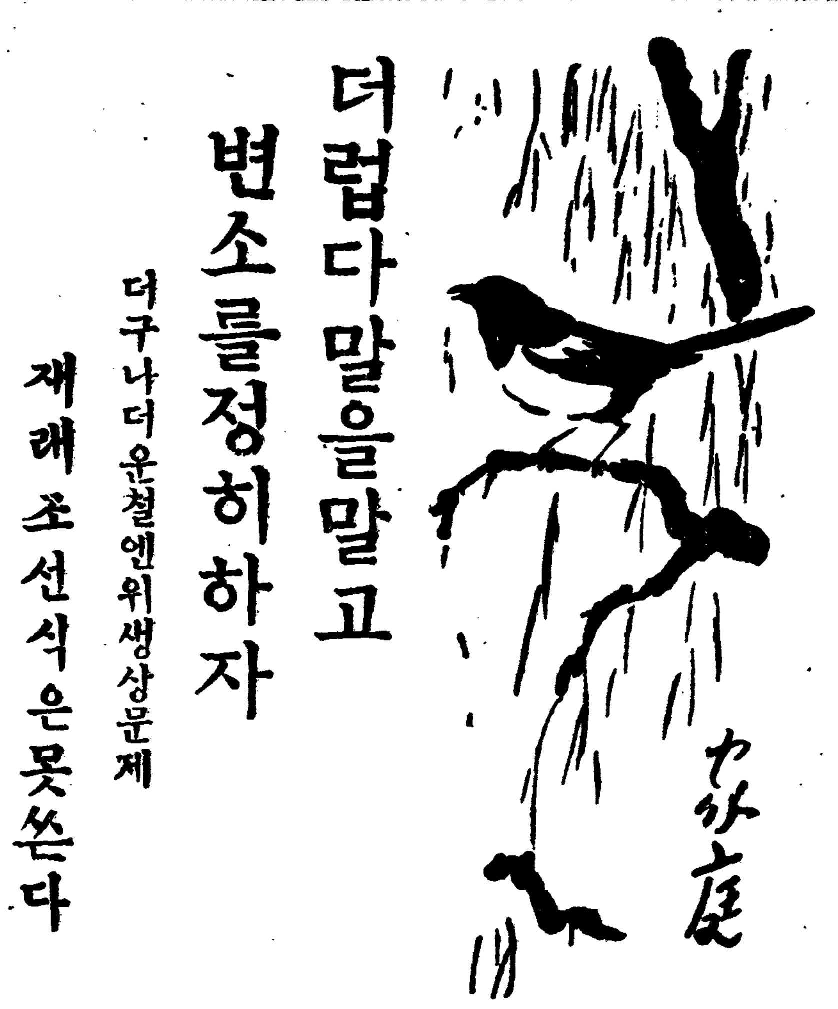
妙香山驛前 [illegible] 妓生 金春[illegible]

妙香山驛前 [illegible] 妓生 金英春

妙香山驛前 [illegible] 妓生 金[illegible]

江界郡 [illegible] 住持 金東[illegible]

000291



더럽다 말을 말고 변소를 정히 하자

더구나 더운 철엔 위생상 문제 재래 조선식은 못쓴다

더러우나 추하나 해도 사람의 생활에 변소가 업지를 못 합니다。오히려 더럽고 추한 그 곳인 만큼 깨끗히 차려 노코 정하게 치우지 안 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아즉 우리네 가옥제도로야 어대 변소를 대단히 녀깁니까? 그래서 변소는 대개로 지저분하고 꼴사납게 맨들어 노치 안습니까? 우리네 생활에 개량할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오나 변소제도를 개량하는것이 그중 중요한 하나라고 봅니다。변소가 그래노흐면 외집안이 모다 불결해지는터로 그것만은 꼭 고처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소제도에도 여러가지 잇습니다。첫재로는 대소변을 모아 노핫다가 일시 일시 처내는 식이요 둘째로는 매번마다 물로 씻어서 고만 치워버리는식입니다。치워버리는식이 모아두는식보담 조흔것은 물론이오나 거긔는 그만한 설비에 그만한 비용이 들므로 여간해 어렵습니다。그저 모아두는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개량만 한다면 당분간 그쯤으로도 무방 합니다。그런데 모아 두는식 거긔에도 두가지의 종류가 잇습니다。

첫재로는 방이나 마루의 한 부분처럼 맨드는식이요 둘째는 그냥 넓빠지쪽으로 뒤를 만 맨들어 노는 식입니다。조선의 변소는 대개가 둘재식으로 되야잇서서 재미 업습니다。적어도 첫재식으로나마 교정을 해야 합니다。

×

변소가 그래 노흐니까 원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변소가 멀리 잇스니 요강 타구등속이 필요하게 됩니다。변소를 원채가까이 지어 노코 요강 타구가튼것을 업새는것이 어떠니까? 변소가 원채 속으로 들어오면 부엌이랑 방이랑 모다 냄새가 새어들어 조치 안타고 합니다。깨끗한 변소가 놀어노흰요강 타구보담이야 아니낫소릿가? 그런데 변소를 깨끗이 하는데는 따로 걸레를 노하두고 매일책질을 해야하고 신을 따로두고 신고 들어가야 하고그래도 뚝경을맨들어서 덧퍼야만 합니다。그뿐이 아니라 변소에서 담배를 태운다거나 가래침을 칵칵 뱃는다거나 하는것가튼 낫븐버릇을 아조 고처 버려야만 합니다。그러고 때때로 소독도 조흡니다 더운철은 물론입니다。

×

대소변에 안젓든 파리가 밥상으로 얼골로 날라다니니 그 아니 더럽습니까? 파리의 래왕을 막아야 합니다。녀름철에는 아모래도 새가 나니 그아니 불결합니까? 장래가 튼것을 노회두어야 합니다。그러나 그보담도 그대소변에는 모든병균 모든긔생충의알이 들끌치 안습니까? 그것을 곳거름으로 갓다 쓰니 엇재 병과긔생충이 마음대로 퍼지지안켓습니까? 어떠케해서든지 그대소변을 완전히 소독한후거름으로 쓰도록 해야하겟습니다。아모럿케나 거름으로 함부러버리는경성부는 벌어나 책임이업는곳입니다

新春音樂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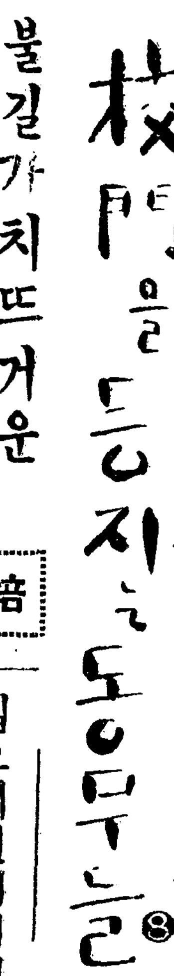
벌써부터 인긔비등하는 당야의 푸로그람도 결정

진명녀자 고등보통학교 동창회주최와 본사학예부 후원으로 신춘음악회를 주최한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조선악단의 권위들을 망라함뿐이 아니라 숨운음악가들의 출연이 잇는만큼 각방면의 인긔는 미리부터 비등되야 갓다。주최자측에서도 그만한 인긔를 저바리지 안코자 연주할곡목을 선정하는데 잇서서도 가장 최선의 진력을 다하얏스니 그날밤의 푸로그람은 대개 아래와 갓다。

曲 目

一、合唱 進明同窓會合唱團
1、安樂한家庭
2、봄노래
二、소프라노獨唱 金蓮淳
1、오솔레미요
2、悲歌
三、피아노三重奏 京城트리오團
피아노 李興烈 提琴 安聖敎 첼로 金仁洙
1、누-엣트 모잘트作
2、트로잇트 베-토벤作
四、소프라노獨唱 李美佐保
「歌劇」아이다中에서
五、提琴獨奏 桂貞植
1、夢想曲 슈만作
2、메누엣 베-토벤作
3、回想曲 도루도라作
六、大笒獨奏 金永模
未定
七、첼로獨奏 金仁洙
匈牙利狂想曲 포퍼作
八、소프라노獨唱 李美佐保
1、들菊花
2、安息의그대
3、
九、提琴獨奏 桂貞植
1、印度哀傷曲 드볼작作
2、가나리야 포퍼아권作
十、絃樂四重奏 桂貞植四重奏團
第一提琴 桂貞植
第二提琴 朴泰喆
비오라 安聖敎
체로 金仁洙

거는고리는 무슨고리
갈 고 리
쥐는고리는 무슨고리
문 고 리
입는고리는 무슨고리
저 고 리
뛰는고리는 무슨고리
깨 고 리
깨골깨골 깨골이
우는고리도 깨고리
(글쓴사람 남 희 창)



校門을 등진 동무들 ⑧

培花篇

불길가치뜨거운 그네들의맘이라 모도다녀성조선의개척자

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는 광무삼년十월二일에 북미합중국남메조치스트파 선교사가 현재내자동에다가 학교를창설하고 팔구세된 소녀들에게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게되데서부터 시작되엿다는데 지금은 루하동팔대이에 벽돌로 새로교사를짓고삼백여명의 생도를 가르치게되엿다고 합니다。

금년졸업생은 전부五十五명으로 경성사범에 지원한사람이 열명 동경 약학전문학교에 한명 동경녀자대학에한명 리화전문학교에 열명 그외에는 모다 각가정에드러간다고합니다 이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안해와 어머니가 되기전에 먼저자긔의인격을 완성식히고 그다음에 남의안해가되고 어머니가되라고 가르친다고합니다、

삼각산에 타오르는 붉은 구름은 불길가티 덥고맑은 우리맘이라

졸업생중에 공부잘하고 양전하고 리지적인 신진순(申辰淳)양은 리화녀자전문학교에 가고 김수영(金秀英)양도 역시리화에 간다는데 나가면 피아노를 잘처서 음악회가잇을때 종종일등상을 타오게되엿다고합니다 김귀호(金奎琥)양은 자수잘하고 리윤숙(李潤淑)양은 운동선수중에서 제일 옷듬가는 운동부장이라고합니다

閔丙烈 金順子 梁貞香 李玉慶
裵五妍 李美林 李雪子 文信愛
鄭相淑 黃珍珠 具貞淑 李聖奉
李能媛 李玉卿 申明姬 鄭妙蓮
趙啓信 梁梅淑 洪景姬 張鳳順
金英子 金希連 金教福 申貞淳
李圭禧 文順福 吳丁順 南宮貞龍
盧英淑 車淑貞 金玉順 李潤淑
金順愛 洪正淑 金順禮 彭貞子
梁瓊妊 秦順禮 金鍾淑 李賢基
鄭圭敬 金奎琥 申辰淳 朴鍾玉
金秀英 安福順 李立分 金壽月
李惠晶 金吉淳 金順金 朴信乘
尹敬仁 郭月熙 裵炳化 李淑禮
河一善 成樂鳳 黃興敏

십오세된어머니 삼쌍둥이를나어

미국 『아리조나』주 『더글라스』란곳에서는 십오세된 어머니가 한태에 아들을 딸하나 삼태를 나핫답니다。태아가 상당히 컷섯다고하는데 어머니 아희들이 다 충실하답니다。

가정의학

우편아래배가불러

問 오십오세로면이온대 작년 십일월부터 우편하복부에서 소리가나며 외부로 불룩하게 팽창됩니다 심할때에는 복통도심하게됩니다 손으로누르면 손가락은 복통도 가려안습니다(금천생)

答 당신의말하신증세로만은 확실치안습니다 만성장협착증도갓삽고 이동맹장(移動盲腸)도가트며 위장하수증(胃腸下垂症)도갓습니다 좌우간 진찰하야보심이 안심될것입니다 병에따라서 수술혹은복대(腹帶)등의필요도알게 되겟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행보를못하게압허

問 이십륙세남자인대 요통(腰痛)과 복통이 이년전부터 종종 심하오며 매월전에는 노상에서 알코기시작하야 행보를못하얏습니다 병명과 약명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通川讀者)

答 요통과복통이 종종잇다하오며 발작적으로 시작되야 행보를못하얏다하오니 신장결석(腎臟結石)인지도 모르겟습니다 혹은 회충으로인하야 그리되는일도잇고 좌골신경통(坐骨神經痛)으로도 이러날수잇스니 전문의사에게 일차진찰을바더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新春懸賞當選小說 轉落 (廿三)

車自鳴 作 金熊超 畵

「애!」

치룡이는 두손으로 여우를쥐겨들고 혼자서 한참 엉덩춤을 추며 날뛰엿다 여우치고는 꽤 큰놈이엇다

여지까지 몰녀든한숨이 땅이 꺼질만큼 무겁게 터저나왓다

『어드런지 간밤에 꿈이 희한해!좌우간이제는 섭섭은면했다』

그는 회심의 웃음을웃섯다 그는 즘생잡이를 착수한후 마수거리로잡은 이여우를 하늘과땅을 주어도 못밧꿀듯깁벗다 그는 봐란듯이 여우를 집머지고 읍부리 동라 한복판을 휘돌아 집으로 돌아왓다 치룡이는 멧칠동안 돌뜬마음을 것잡지못하고 웃슬덩웃슬덩한 깃뿔속에서 메칠을보내다

……이제 길이 트이기 시작햇스니 겨우내잡히면 여우란놈을 한댓놈 흥은 잡을수잇슬는지 몰은다 적피(赤皮) 시세가 쑬쑬만 해도 이십원씩은 하니 다섯놈에 백원── 이것만가지면 강좌수네 빗따위는 문제도 업다 거게다 간간 집힐 잡피(雜皮)로 그럭저럭 농량이나대이고……

그는 이러케 생각하매 춤을 출듯깁벗다

『남는 돈은 무엇할까?』

치룡이는 얼핏 양전이를 생각해내엿다 죽은 사람을 살녀냇스나 이제는 잔채미천마잇다면 두말업시 나를 추겟지──

그는 멧칠전 산에서 업어내려올때에 따뜻이 통해오든 양전이의 체온을 생각하고 속이 스스로 근지러워 올나옴을 억제할수업섯다

×

음력 시월중순 어느날밤이엇다 누리는 먹을 가라부린듯 캄캄하엿다

하늘은 재를 담아부은듯 침침하게 흐리고 하네파람이 모질개 휘휘 부려갈기엇다 늣게온 나는 첫눈이 오늘밤에야 겨우 잇다금 부실부실 내리다가는 끗치고 끗첫다가는 다시내리고한다 달빛도 이 칠흑색어둠을갑하 밝히지 못한다

이 응집한 밤을 [illegible] 그림자하나가 올망잇슬 뒷산으로 갈팡질팡 헤매이고잇섯다 어둠에 얼골은 잘보이지안흐나 생김생김이 사람인것만은 확실하다 사람중에도 차림차림이가 사나히갓다

사나히는 허청허청한 다리로 가리는곳업시 쏘단인다 언덕바지에서 쪽밋그러저 잣바지면 한참식이나 그대로 누어잇다가는 다시 빗슬빗슬 것기를시작한다 구렁에를 콰당당 빠젓다가도 역시한참씩 노혀잇다가는 다시 움직움직 일어나서는 긔여나온다

눈도 잘안보이는지 나무를머리로 딱딱밧기도하고 덤불속을 그냥 와작와작 들어가다가 가시에 글키기도한다 밝은날보면 발뜻이 손피발이 피투성이가되엿슬것이다 옷도갈내갈내 찟어저서 그 째진옷지락이 바람에 펄펄날인다 목덜미까지 내려덥허서 맛치무슨 즘생갓다 얼굴에는 눈송이가 선둣선둣 녹아흘은다

사나히는 두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여전이 헐석헐석것는다 배가꼽흔모양이다 나히의 미런에는 끈임업시 싸늘하게얼은조고만 콩알이 떠올낫다 차거운맛이 혀바닥을 찔으는듯하다 훌면 그의 머리에는 어떤집 부억이 눈에 선하게 떠올은다 삼사인의 여인이 메주콩을 쿵쿵찟고잇다 아직어린그는 엽집아이들과 함께 메주콩을 가느다란 집고개에 족게여서 [illegible]에 하얏케덥힌 눈속에 파뭇는다 펑펑얼은 콩알의 싸늘한맛……

그는 군침을 꿀걱드리삼키엿다

배가 곱흐나 눈이 어즈러워 견될수업다

그의머리에는 악가 나제 주서먹든 얼은콩알의 까만모양이 그려부친듯이 떠나지안헛다

사나히는 차츰차츰 더욱깁히 산속으로 들어갓다 얼는보면 방향도업시 뛰여다니는듯한 이사나히의발길이 유심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엇떤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찾는듯한것을 깨달을수 잇다

斯界權威를總網羅 最近樂壇의豪華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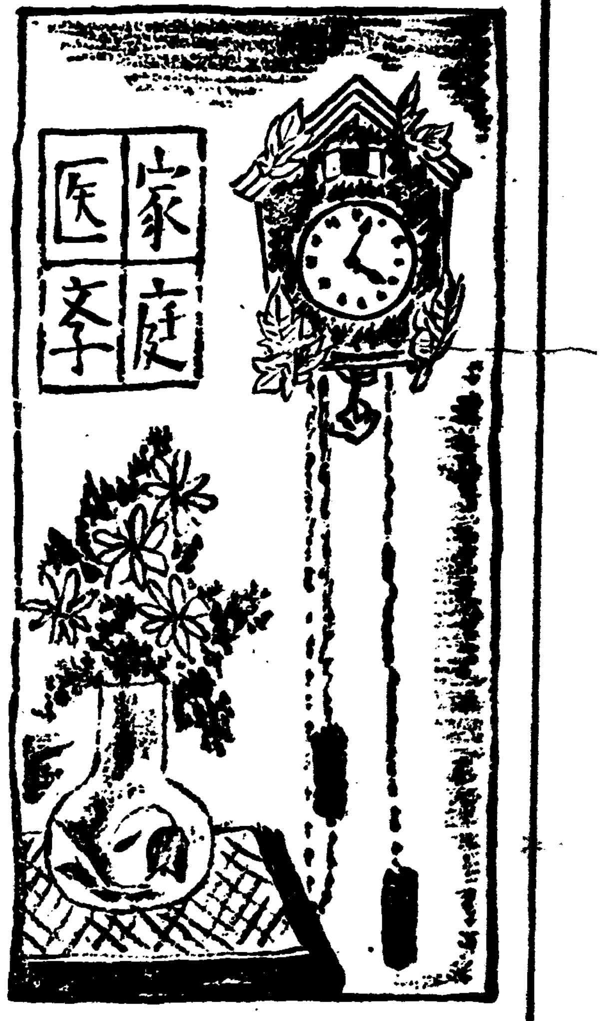
新春音樂大會

主催 進明女高同窓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二月二十六日午後七時半
市內 長谷川町 公會堂에서

出演樂士
桂貞植、金仁洙、李興烈、朴泰喆、安聖敎、金蓮淳
李美佐保、金桂善、進明女高同窓會合唱團

◇……入場料 一圓均一



압흔것으로 自己가 胃腸病症을 診斷

急性胃가다루나 胃酸過多症은명치가 압흐고 胃潰瘍의 特徵은 食後에압흐고 胃癌은그러케 甚히압흐지는안타。

胃腸病은 日本人에 特히 만코 그 死亡率은 다른病의 數培에 達하는바 自己에게 일어나는 容態로 大槪 이것은 무슨病일가── 하는짐작이날만한 知識이잇스면

速히、適當한 治療를하게되면

危險한것도 自然히 防止할수잇게 된다、그런데 胃腸病은 大槪 痛症이 나오고 그모양이 病에따라서 各各을 니는데가잇다。

명치는 胃가잇는 部分임으로 그곳이 압흐면 大槪胃가 압흔것이라 生覺하여도 틀님은 업스나 間或 心臟病과 肋膜炎等이 잇슬때에도 명치가압흠으로 病名을알려면 다른症狀도 考慮하지 안흐면안된다

그럼으로 急性胃가다루 過過는 명치가압흔外에 大槪는 嘔逆이 나오고 그만한것에는 膽汁이 석게잇는것도 多少의 血液이 석겨나오는것도 잇다

그痛症이 下腹部로 내려가고 곳설사가난것은 急性腸가다루를 일으킨것으로 雙方이다 慢性이되즉 그러케痛症은업스나 局部를 눌느즉 그近方一帶는 으리하게 압흐다 이런 痛症은또 常習便秘時에도 느긴다。그리고

空腹時에 명치가압흔

것은 大槪胃酸過多症으로된것이다 이것은 胃液의 分泌이 過多함으로된 病으로서 痛症外에도 아조 신트림이 나오고 가슴이 쓰리게된다。

胃病中에도 胃癌은 大部分不治病이라말하나 胃癌의 原因의 一로 헤이고잇는 胃潰瘍이라한것도 곱직하낫지안흔병으로서 그痛症은 食後直時부터 二時間쯤사이에 일어나는것이 特色이다。痛症의 程度는 쑥쑥쑤시는것부터 파내는것가튼것、불로뜨는것가튼 痛症에일으기까지 여러가지로써、場所도 명치部뿐만이아니고、등덜미까지 쪼개내는것가튼 痛症이 나는 일이잇다。더욱 胃癌이되즉 痛症을 늣기드라도 그러케 激烈하지 안흔것이 通例이다。

또 食後에 膨脹感을 늣기고 胃가 무거운듯하게 압흔 胃弱은 嘔吐를 잘한다 胃擴張、胃下垂도 食後에 똑가튼 容態를 나타내고잇스나 胃擴張은 胃弱보다도 一般에게 容態가 酷甚하고 胃下垂에는 嘔逆이 나지안는다。이런 胃腸病의 治療로서는 從來 例컨대 胃酸過多症에는 重曹와가튼 알카리劑를 주워서 酸을 中和하고、胃가다루로 설사하는분에는 收斂劑를 주워서 自然恢復되기를 기다리고 便秘에는 下劑를 쓰는등 大部分 科學製劑에 依한 對症療法의 範圍를 안나오는것뿐이아니라

病源에서 胃腸病을 恢復식히는

것은 여간 困難한일이 아니다 그런대、『錠劑와가모도』라하는 生物製劑는 胃腸의 衰弱한 細胞에 活力을 주어서 損傷을 恢復케하고、그機能을 健全케 旺生식히는 酵素와 食養素라고하는 이슈린、삐타민等을 豐富히 含有한 藥劑인마큼 胃腸病의 治療에 新機軸을 出來한것으로 推奬되고잇다 例컨대、胃酸過多症이 잇는분이 이것을먹으면 胃液의 分泌가 調整되야서 過多한 酸이 正常的으로 恢復하게된다。

또 胃腸과 胃擴張이면 胃筋의 弛緩이 恢復되고 胃가다루는 消化液의 分泌를 促進함으로 消化가 充分하되고 설사도 便秘도 自然히 恢復하여진다。

結核과石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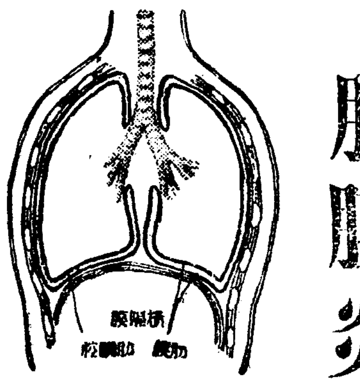
鷄卵中의 液體가 雛가되야 굿은 骨骼이 創造되는바하고 人間의 血液이 骨骼안되는 法은 업슬것이다라고하는 名古屋醫大의 佐佐木博士의 硏究는 드디여 成功하야 世界醫學界를 驚歎식혓다

뼈가되는것은 石灰가 沈着됨으로써이며 그것이 生命에 重要한 오키시타제라고하는 酵素가 絶對로 必要된다 이 石灰沈着現象은 結核이 治癒되는때에 나타난다

幸으로 新生物製劑 『錠劑와가모도』에는 右의 酵素가 잇서서 石灰沈着現象을 速하게하는 作用을 發見하엿슴으로 『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면 結核菌을 石灰物質로서 封鎖하야 結核의 治癒가 促進되는것이다

結核性이 만흔 肋膜炎과 腹膜炎

肋膜



肺結核은 不治의 病으로 誤解하야 그것을 슬허하는 분도잇지만、

意外

에 肋膜炎이나 腹膜炎이 무서운것은、그러케 認識을 깁히하는 사람이 적다。

事實은 肋膜炎、腹膜炎中 어느거나 肺結核의 兄弟라할만한 危險症이다、癩病者가 적은것도、또한 病이 結核性의 만타고하는것도、함께 注意할바이다、

結核性의 肋膜炎은 흔히는 感冒와 肺炎 氣管支炎等에 따라 發病된다。

이것은 呼吸에 依하야 伸縮되는 肺를 包圍하야 肋膜과 摩擦되지안토록 직히고잇는 二枚의 薄膜──肋膜이 結核菌에 犯하게되면 생기는바 初期의 症狀으로서는 輕한 咳가나며 微熱이 길게 끄는거와가티 緩慢하게 發病되는바 때로는 三十九度以上이나 發熱하야 胸部나 背中을 찌르는것가튼 病狀을 感하게된다。어느거나 病勢가 더하게되면 呼吸困難、食慾不振、發熱等이 不知不識間에 肺結核에도 移行된다

그러치안트래도 衰弱이 오래되면 生命을 빼앗기는 일이 만타。腹膜炎도 同樣으로 結核菌이 腹膜에 付着하면 생기는것으로고

症狀

은 全身의 衰弱、發熱、盜汗、食慾不振、腹脹(배가膨脹)이 特徵인바、더욱 濃滲와 便秘가 交互로 생기며、마치 腸가다루와가튼 症狀을 이르킨다。

結核의 病變이 進展되면、腹腔內에 化膿식혀、腸管의 內部를 犯하야 潰瘍을 이르키고 出血을하든지、또는 腸狹窄을 誘發함으로서、肋膜炎同樣、[illegible] 안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病이 結核性이기때문에、肋膜、腹膜炎과가티 오래동안 養生을 要한다。

卽 心身의 安靜과 食事療法、淸淨한 空氣等은、結核療養의 鐵則이다 肋膜、腹膜炎病者도 共히 實行할바이며、이 鐵則의 眼目은、結局、全身에 榮養을 充實식혀 病體의 抵抗力을 强固히하야、自然治癒能力을 振興식힌다。

이런 意味로서 各種의 結核病에 反應되야 成績조흔 新生物劑『錠劑와가모도』의 服用이、最近醫家、及服用者間에 盛히 推奬되고잇다。

이것은 헤-빠라고하는 藥用菌을

活性

그대로 藥劑로한것인바、이 藥中에는、細胞賦活作用이라고해서、衰弱되고 損傷된 細胞에 活動을 식혀、機能을 活潑케하며、病患部를 復活식히는 作用을 가진 成分도 한 多種의 貴重한 榮養素도 具備하며 胃腸으로부터 全身諸機能의 强化와、榮養素의 補給을 同時에 行함으로서、榮養狀態도 改善되고、肋膜炎의 症狀은 病源으로부터 治癒에 引導되는것이다。더욱이 『錠劑わかもと』는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五圓으로 東京市芝公園 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發賣되고잇다。[illegible]

治療體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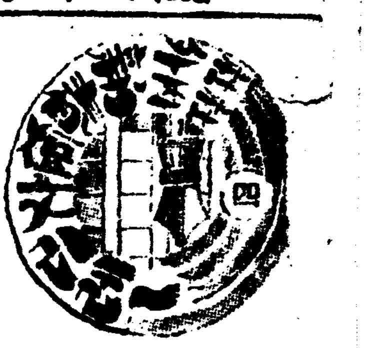
數年苦悶튼 胃酸過多症이 完快

(圖解) 山本茂男

(前略) 只今까지 낫버던 胃가 漸漸 낫버지고 食慾이 不振하고 身體는 漸次로 여위여서 商店에 나못가는 날이 하로이틀이 안이엇섯다 醫師에게 보이엿드니 펴으나 胃가 낫버 (中略) 집에 돌아와 醫師에게 보이면서 한半年 늘면서 靜養하여 次第잇기에 다시 奉公하던데로 돌아가섯다。一個月쯤되야 다시 前과가튼 狀態로서 苦悶밧엇다 한六個月前에 『錠劑와가모도』의 廣告를 읽고 곳사다 服用하야보는中에 가슴쓰리든 胃가 펴으나 嘔逆가 조와진것을 알엇다 나는 갑버하로에 맥回고 服用하엿다 身體는 날노 元氣잇게되얏다 밥맛도 增進되고 體重도 增加되야 身體에는 살지여 一家庭이 모다 즐거하엿다。四五年 苦悶튼 胃酸過多症이 一個半年 안되는동안에 거이 나어서 只今은 每日 元氣잇게 勞働하는中이다。더욱히 商店에 오는 손님中에는 내가 完快된것을 보고 『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기 始作하야서부터 그 손님도 오랜동안 苦悶튼것이 完快되얏다고 펴으나 깁버하엿다 (後略)

日本一
ランランチック
란 란 직 구

습저한번보시기만하면단번에
良品인것을곳아심니다──



편지

이밤 이제 조금마잇스면 닭이울어서 구신이 제집으로가고 록보롬날이 오겟습니다。이조흔 밤에 시렴언장을자면 하야야케 눈섭이 세인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록보롬어면 녯 사람의 인정가튼 고사리의 반가운맛이 나롤흘러도 조흣이 허연 [illegible] 폼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셋파란 꿈이 안개가티 오르고 또 놀한 슬픔이 내내가티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밤을 당신께 이 놀한 슬픔의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조켓습니까。

남쪽바다ㅅ가 어떤 날근 항구의 처녀하나를 나는 조하 하엿습니다。머리가 깜아코 눈이 크고 코가곱고 목이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엿습니다。그가 열살이 못되여 젊디젊은 그아버지는 가슴을알어 죽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홀어머니와 둘이 동지섯달에도 눈이오지안는 따뜻한 이 날근 항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들친 뭇가티 살어왓습니다。어느해 록보이 저롤 게실비오는 무더운밤에 처음으로 그들앞으나는 여러 아롭다운것에그를 견주어보앗습니다ㅡ당신께서 조하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롭다움이 달븐것을 골라내일수업섯습니다。

송명 한 내친구하나가 그롤비겨서 수선이라 그러엿습니다。그제는 나도기뻐서 그롤비겨 수선이라고하엿습니다。그러한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그는 수물놀 넘지못하고 또가슴의병을 어덧습니다。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놀한 슬픔이 떠떠오르지안케 나는당신의 보내주신 맑고 고흔 수선화의폼을 치여노아야하겟습니다。

밤이 아직 새일때가멀고 또 복밤을 먹을때도 아직되지안헛습니다。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그릇이 잇는데로가서 무새헝겁이나 어더다가 알록달록한 각씨나 만들면서 이남은밤을당신께서 조하하실 내시꼴 록보롬밤의 이야기나해서 보내도조켓습니까。

록보롬으로 넘어서는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우칸에도 맛우칸에도 루방에도 허텅에도 고방(광)에도 부엌에도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제쑷하니 불을켜노코 복을마지하는 밤입니다。닭같은마음의 행길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것도가튼 밤입니다。닭이 수장올자고 개가 밥을놀 먹고 도야지 깃을 돌섯이는밤입니다。새악시처녀들은 새옷을입고 복줄놀 깃는다고법을 건너기도하고 고개를 넘기도하야 부잣집 우물로가서 반동이에 용패기에 찰라찰라 물을 길어오며 벙가른 이야기를 작절작갈하는 밤입니다。새악시처녀들은 또 복술가저오노라고

달울 보고 웃어가며 살기가리 여우가티부잣집으로가서는 남새기도 하게 기와ㅅ풀의 기와장을 벗겨오고 부엌의 솟우껑을 들어오고…이 새덩의 집날을 빼아오고 꿈 려케 허롱업는 즐거움속에 끼득깨득하는 그들은 산에서날인 무순 앞슴생들이 되어벌이는 밤입니다。그러다는 집으로돌어가서 마을고요히 세메디달린 수숫대에 매디마다 콩 한앞식을 박어 울둑안에 넛는밤인데 밝는날 산돌이라는 웃매디 중산이라는 가온데매디 해변이라는맛매디의 그어느매디의콩이 붓는가를보고 그어느고장에 풍년이 들것을 점칠것입니다。그러다는 닭이울어서 새날이되면 아홉가지나물에 아홉그릇밥을먹으며 먹으면 몸쏙빼기가 쏨다는 김치와 먹으면 김맬때 비가온다는 물을 작고 먹고십허하는 밤입니다。이러케 해서 록보롬의 아홉이됩니다 새악시처녀들은 해뜨기전에 동리국수당의수무나무가지를 꺽오래서 가시가시에 하이얀송을피우고 그속엣속에 맥칠엇서부터 수물이고설흔이고 맨들어노흔 울긋불긋한 각시와 재하얀할미를 세워서는 글롱당에 굿새당에 장독당에꼬지놋는데 이러케하면 이해에는 하루같이 목화바데서

천근 목화가난다고 밋는 그들이 새옷의 스적이는 소리도조케 의조흔 작패들끼리끼리끼라 밀려단이며 담장마다 머물러서는 목화따는 할미며각시와 무슨이야기나 하는듯이 즐거워하는것입니다。

(닭이우나?) 아 닭이 울니다。나는 이만이야기를 끈치고 복밤을 기달이는 얼마아닌 동안 신선과 고사리와 수선화와 병든 내사람이나 생각 하겟습니다。

☆☆☆☆☆

學藝

남은作品에對한感想
常識主義에反逆하라
文藝月評 ⑦ 白鐵

以上에서 加評해온 作品들이외에 新人의短篇으로서 李約瑟氏의 『內體』(中央紙)와 朴北民氏의 『十松亭에생긴일』(三千里)에 對하야 各기 粗感을 加하려고하얏스나 資料가 一部分식박게 손에 들어오지안허서 如意치못한것을

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며 그밧게 一般作家들의 作品으로서 五大篇가량·남은것이잇스나 氏等의 이번의作品들에對하야도 直接으로는 一一히는加評을 略하려고한다、그것은 氏等의 作家的才能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今月中의 創作을 가지고 氏等의 全力量을 評價하고 십지안흔것과 또한 假借으로라도 一時의 駄作을 弱點으로 그 作家에게 非難을 加하고 십지안흔等의 心情도잇섯거니와 그보다도 여기서 내가 그作品들에 대하야 評을 拒否하고잇는것은 그作品들에限하야는 아무論評의 必要가要求되지안코 따라서 또한 加評할興味도 가질수업다는 점에잇다 過去에 나는 달마다 發表되는作品은 全部를 讀破하얏스며 읽은作品에대하야는 必要와興味의 有無如何에 不拘하고 반듯이 一一히加評해가는義務를 늣겨섯다 하나 나는 이以上더 그괴롬은 無興味한義務를 계속하려고 생각하지안는다

批評(文學이라는것도 亦是 그動機를 創作意慾에두고잇는이상、批評家그自身에게 個性的으로 깁흔印象을주지안는作品에 評을加한다는것은 그批評의道에反하는 行動일뿐더러 기고잇스며 그보다도 첫신重要하게생각하는것은 批評人의 忠實한 任務의하나가 모저도 말한바와가티 그作品에대하야 一般讀者에게 理解되지못할점등을 整理하며 說明해보이는곳에 잇는것을 생각함으로써다 A、지이드는 어느곳에서 이런말을하고엿다 『作家의 作品은 作家가 讀者에게 提供하는 一種의 擴大鏡이다 그 擴大鏡은 讀者로 하야금 그들이 그作品이 업섯기때문에 지금까지 敢히 內觀을 할수업든것을 분명하게 區明해보이는것이다』라고

勿論 한眞實을指摘하고잇는말이나 그眞實을 是認한後에 다시 參酌해야할일은 作品이高度하면할사록 또한 讀者의 편으로그 鑑賞의 水準이低下하면 할사록 그 作品스스로가 곳讀者의擴大鏡이될수는업다는것이다 그境遇에는

中間에 批評人이 擴大鏡과가티 作品을再映해보이는것이 必要하며 그部面에 批評人의一任務가 論賞히 잇다고생각된다。그나 그러치안흔境遇 一定한作品에대하야 아무擴大鏡의 中介가 要求되지안는限에는 구태여 二重의擴大鏡을 中介할必要가업슬줄안다 여기서 아무加評이 要求되지안는 作品이란 나는 이달의作品과관련하야 大槪 平凡한 駄作인境遇라는것을 力說하려고하는바이나 一定한作品世界에대하야 作家의 아무深刻한努力이 보히지안코 단순히 表面을 常識的으로 通過한때에 그作品의淺薄性은 一般讀者의 常識水準以上으로 그理解의 困面을 要求하지안는다 거기에대하야 무슨 더臨臨한 批評的說明과 讀者의理解를 위한 協力이 必要할것인가?

常識! 요즘 東京文壇等에잇서는 作品과 關聯하야 常識인가 非常識인가가 應應히 論議되고 잇는모양이며 또한 이곳에서도 『세스토프』의

有名한 日常生活에 대한反逆! 이란것을 생각할수잇스나 우리들은 무슨 哲學的解明에서 보다도 그것이야말로 常識的 意味에서 平凡한 常識主義에 對한反逆!이要求되고잇다고 생각되든다

이번 加評의必要를늣기지안는 作品들의 共通의 一般特徵이란 그것이어느것이나 平凡한常識主義에 떠러저잇다는것이다 오늘날에잇서는 失職小說 或은 火田民作品그것으로는 讀者에게 아무興味를주지못한다 『아무支障르은는 말하고잇다 『안드레·베도업이 思想과感情을展開식히는 너무潤滑한 機械主義는아무 興味를끄을지못한다 왜그러냐하면 慘事가잇는 境遇에만 우리들은 興味를 늣기는까닭이다(『近代文學의 精神』等 第二章中)라고。 조선의 作家들은 一般으로 慘事 그것을 避하고 創作에 너무 樂觀的으로 對하고 잇다고 보여진다。눈압헤 보이는 모든 常識的 事實을 그대로 取扱하는데 滿足하려고 하는듯하다。一部의 常識作家에잇서는 그作品을 讀者에 理解식히기위하야 될수잇는대로

常識世界에 머무르려고 努力하는 모양이나 大抵 한 作品이 그 眞實한 힘과 迫味에 依하야 讀者를 感動식이지못하고 平凡과 常識의 證明에依하야 讀者에게 理解를求할때에 그것은 文學的으로무슨 價値를가지고 잇슬일깟가? 그러한 安易하고 平凡한 常識主義에 堪忍할수업는 憎惡를늣길때

엇던 作家는 絶叫한다 『그대들이中途까지 가는것을 나는 自己의生活에잇서서 最大限度까지徹底히 나가고 십흔것뿐이다 그대들은 自身의 卑劫을 眞實히다고 判斷하며 平凡한 空想을追求하는데 滿足하나 나는 나가서 좀더生氣잇고 眞實한生活을 探求하는것뿐이다 좀더 正視해보라!現今의우리들사이에는 무슨 生氣잇는것이 存在한것잇가?』라고。

直接 우리들의 作家의하나인 李箕永氏는 그의人間修業가운데서 主人公현호의입을비러 그의平凡하고 善良한안해에게 다음과가티 講話한다『나는당신의 平凡과常識主義에 反逆하라!』라고 여기에 우리들은 反省할것이 잇다고본다。

『코로ー』의名畫遺失

【倫敦發同盟郵信】 佛蘭西의巨匠코로ー의名畫와 十九世紀英國의『그림의키ー쓰』라고 讚歎되든 리챠ー드·보닝통의名畫二枚가 最近倫敦에서 어떤者에겐지盜難을當하엿다한다 그中에도 이들의名畫가 盜難을當한現場은 『이ー든』外相의岳父서ー까ー뷔수·베켓트氏의邸宅임으로 非常한센세슌을이르키고잇다 盜難當한『코로ー』의그림은『딴킬크』의海景을 그린것이고 『보닝통』의것은 『메칸브』의 가튼海景으로 各各 時價七百磅(約一萬圓)의 高價인것이다。兩方이다 『베켓트』邸의 應接室에 걸리어잇든것으로 賊은 家族이 업는틈을타 白晝大膽하게도 그림틀을과함게 盜賊해 간것이다。『베켓트』氏는 이盜難事件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盜賊은 二枚의 그림을 計劃的으로 도적해 간것갓다。應接室은 比較的 嚴重히 하여 잇섯슴으로 오래前부터 機會를 엿보고잇섯든것갓다 따라서『카미ー유·코로ー』는 周知함과가티 十九世紀初期의名匠이며『리챠ー드·뽀닝톤』은 自然的히 海景을 描寫함에는天下一品이라고하엿다 그그림은渾然한『自然의詩』라고 할수잇는 巨物이다

戲曲 春香傳 (七)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夢龍 난들 오매간에 이즐수업는 이며달을 여기서끈코 어떠케떠나겟느냐? 그래서 사人도께 살외보기도했다。아버지모저행차하시오 소자는 남은일수습해가지고 며칠후에 올나가겟습니다고 그러치만 그 고집꾸러인 아버지가 그말을 들어주서야지。

春香 그러면 도령님 올라가오…(그래노코는 별안간운다。) 에그머니! 에그머니! 천리밧에님을두고 이년은 어찌사오리가? 이팔청춘 젊은 몸으로 독숙공방을 어찌하오리까? (夢龍의 목에 매달이며) 지금 도령님을 보내오면 오날밤오경시를 이변은 못넘기겟소(느낀다)

夢龍 울지마라。울지마라 춘향아。

月梅의노래소래 밧게서 둘닌다
리별이야리별이야 전송춘에라회리별 강수원함청하니마리에 차군리별 연회삼월하양주하니 황학루상고인리별 초가사면만영업에 초패왕의 미인리별……
(이웃寡婦조용거름으로 들어온다)

春香 아이구 향단아。마님 좀 모서드러라。저기서 저것좀 봐랑。화가 나서서 술을 자시공。

香丹 아이구머니!(밖그로 빨리 나간다)

月梅 (취해다、게속하야 노래부른다)…삼춘에안북비하니 역로에형제리별모도다 설다하되 님리별이 더욱설다、죽자하니 청춘이오 살자하니 님그리워 내신세를 어찌하리…(登場하며 깔깔웃는다) 행이대에 경사낫고나 경사낫서。(春香을 보고) 아니 저년이 웨우니? 도령님이 경사시면 내집도 영화하여든 울기는 웨울엇느냐

夢龍 (마당에내려가서)장모 웨이러오?

月梅 (夢龍의허리띄를끄을며)올치 네 이눔의자식! 뻔뻔스럽게 내집에와서。이눔아 이 이가놈아 나하고 말좀해보자、외마되로 대답해라。내딸을 다리고갈테냐? 두고갈테냐?

夢龍 (답을못하고섯다)

月梅 아니 이눔아 무슨연유로 내딸을 못다리고 간단말이냐? 말을 좀해보아라。가만히 잇는 아회를 꾀내 가지고 화월사경 기픈밤에 진당치듯버려주고 이제와서 똑 떼바리고 가다니웬말이냐? 내엄는 돈에 빗내가며날마다 고양진미해멕일땐 무슨뜻으로 해멕엿는지 아느냐? 내딸춘향이가 행실이 그르더냐? 인물이 못낫더냐? 언행이 물손터냐? 잡스럽고 루하더냐? 군자숙녀란 칠거지악이 업는담에야 못바리는법이다。근본잇다는 량반의 자식의 행세가 이러한야? 내딸이 그러케 만만해 보이더냐? 이놈아! 내딸버리고 가는놈은 내가 그놈의간을 아직아직 씹어먹을테다。아니 이놈아 부명만 무서웟지 내딸죽는것은 무섭지 안단말이지!(夢龍에게 달겨들어 全身을 꼬집으며 넙적다리를 물어뜻는다)

夢龍 아야야……장모 이렇것업송。어듸 춘향을버린댓소 내가。

春香 에그 어머니!웨이러오(月梅를떼내려한다)

月梅 아니 이년이 제서방 역성드는고나。

春香 어머니 술을 잡수시고웨이러오。도령님은 나를 안버려요。

月梅 뭐?

春香 도령님은 날더러 아모데라도가서 막버어리라도 해먹고사잡니다。

夢龍 장모 나는 죽어도 춘향이하고 가티죽고 살아도가티 살사람이오。

月梅 막버어리?아니 내딸을다리고가서그저 막버어리를해먹어?이런 원천하에!우리네를 깔봐도 분수가잇지! 아니 내딸을어떠딸로알고 하는소리야?저래뵈도칠세에 소학일궈 수신재가화순심을 낫낫치깨친에다。흠든면이 저것하나를 길너냄제 말년에 것으로나 랍음보랑으로 한울갓치 미덧는데 그래 막버리꾼놈한테 줄녀고 내가내딸을 여태엘써키웟단말이로구나?

春香 어머니는 모르시는말슴이오 도령님이 그런말슴을하시는것은 결코 나를ㅣ

養疴雜錄 (六)
嫡庶(適庶)
碧初

嫡子란 正妻所生長子니 長子一人以外는 다庶子다 庶子의 原義는 衆子와 갓건만 우리朝鮮에서 오로지 妾의所生만을 庶子라 古稱하야 庶子解釋이 己亥禮論에(孝宗昇遐後慈懿大妃服制에 對하야 西人一派는 一年說을 主張하고 南人一派는 三年說을主張한것)是非入거리가 되기까지하얏다 妻의所生과 妾의 所生을 嫡庶로 區分하고 庶를賤待하되 世界에類例가업도록 慘酷히하야 庶는 階級的權利를 누리지못하고 甚하면 血統的倫紀까지 펴지못하얏다 骨肉間의 貴賤懸殊함이 班常의 階級달름이나 진배 업섯다 『母以子貴』란말은 잇스되子以母賤이란 말은 업는데 한갓 母系가 賤하다고이러케 賤待할법이잇슬까 庶의 賤待밧게되든原因을 캐어보면 母系賤한것 보담 仕宦막힌것이 重大하얏다 大抵 兩班이란 仕宦에서 發生成長하고 仕宦으로 腐敗墮落한 階級이라 孽骨肉을 버릴지언정 仕宦은 차마 버리지못하얏슨것이다 嫡庶間子女가 등히업서야 養子를 許하는것이 國法인데 그 國法을 置之不顧하는者가 許多하므로 英祖때『無適子者以庶子爲嗣。依法典施行』하란 申節까지 잇섯건만 끗끗내 庶子를두고 養子하는것이 成風하얏다 이것만 보더라도 兩班이 仕宦을 骨肉보담 더所重히녀긴것을 알수잇다 太宗때 右代言(右承旨)徐選의 請으로『庶孽子孫勿叙顯職』하라는 傳敎가나려서 顯職이 막히고 成宗때 姜希孟、安琛等이編纂한經國大典에 『庶孽子孫勿許文武生進』이란 明文이박히어서 顯職外에 大小科擧까지 막히엇다 大典頒布當時에는 『庶孽子孫』이란 子與孫뿐이요 曾孫以下는 빠진줄로 解釋하는것을 그뒤에 姜希孟이 大典을 註解할때 子子孫孫이란말을 添入하얏다 明宗때 各姓庶族들이 上疏하야 寃情을 살외엇果 良妾의孫以下에는 科擧를 許하얏섯스나 그나마 暫時施行한後 곳 廢止하게되엇섯고 中宗、宣祖、仁祖、肅宗、英祖、正祖、純祖(憲宗代理時)請願에서 庶類疏通을힘써서 仕宦길이 多少열리어섯스나 錮閣이 좀처럼깨어지지 아니하얏다 英祖는 疏通을 特別히 힘쓴君主라『州牧之任。勿拘門地』하라。『許通淸顯』하라『大學序齒。鄕學亦以此遵行』하라 丁寧한下敎가 屢屢히나리엇섯다 英祖昇遐時에 各姓庶族의집에서 婦人孺子들까지 涕泣하얏다하고 英祖忌辰에 大邱의庶族士人들이 年年이 達城山中에 들어가서 痛哭하야 그곳에 泣弓臺란名稱이 생기엇다한다 抑鬱함으로 感激이 더욱기펏든것이다。

嫡庶에關하야 적을만한것이 許多하나 모다 割愛하고 庶의俗用名稱이나 그쥐부치겟다 左族이란 邪道를 左道라 降職을 左遷이라하는것과 가티 尊右卑左에서 나온말이고 一名이란 英祖때 增廣科에許通一名한以後생긴말이라하고 椒林이란 胡椒의맛으로 庶孽의 孽音을變한纂話라하고 한다라짤다는건 母系를 譬喩한말이고 녀點박이란 庶子미테 녀點을 가지고 만든말이다。

科學

1935年度 노ー벨醫學賞
한쓰、슈페만博士 그略歷과業績 ②
李鶴松

實驗發生理學이라는것은 自然發生을 人爲的으로 研究하는것이다 例를들면 卵子와精子의受精을 人工的으로식히여 여러가지로 環境을變化케한後 그受精狀態를 研究하거나 또는 自然受精된卵子에서 將次上肢가될部分을 下肢가發生할部分에

移植하여 그移植의運命을 研究하는學問이다 그런데 이實驗發生理學의 元祖는라우(ROUX) 博士이다 라우博士의 뒤를니어 實驗發生理學이劃進的 進步途程에 잇슬때에 그의가장 有力한後繼者가 우리의 欽慕하는한쓰、슈페ㅡ만先生이다 先生은隱蔽한發生理學界에 큰光明을주어 그의前進할方向을指示하고 또當代多數한 新進研究者에게 荒漠한發生學을 征服하여 그의 幽妙한眞理를 探求할만한效果的이요 또奇妙한 새로운武器를 손에쥐여주엇다 先生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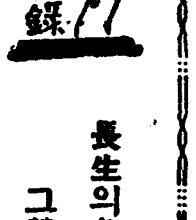
器官原基의 存在와 位置를 動物實驗으로 確實히 證明하엿다 다시말하면 受精한卵子에서分化하여 將次 코(鼻)가될部分或은 눈(眼)이될部分 或은 四肢가될部分이 一定하여잇서서 그部分을떼여서 다른部位에 移植하더라도 그移植된것이 코(鼻)가 將次發生할 原基이면 그곳에서 코가發生하고四肢이면 四肢가發生한다 다시말하면 코될部分은어데를떼다 붓치더라도 코가된다는것이다 그리고 그器官原基의部位는 一定하여 잇다는것을 先生이 發見하엿다 이研究와同時에 胚葉移植術이라는奇妙한 手術方法을 發見하엿다 先生의 이러한 研究는 發生理學의 劃時期的光明을 주엇슬뿐만아니라 다른生物學界에도 多大한 指導的影響을주엇다

以上에 말한것이 先生의偉大한 業績의 全面을 表現한것은 아니다 吾人은 先生의 研究結果를 根底까지 測定할만한무엇을 가지지못하엿고 따라서以上에말한것이先生을 欽慕하고 讚嘆하는 理由의全體는 아니다그는先生의 努力과 精神을包含한 體의 構造은 顯微鏡보다도 깁히(深)가크다 그럼으로 先生의

思考와 研究方法은 恒常 階級的인것을차저볼수가 업다 이것이 先生의 偉大한 業績을낫게한理由이고 또 先生의 研究業績의 全體를 包含하고잇는 生命잇는 特點이다 그리고 先生은 어떤些少한 對象이라도 이것을 單純視하는때가업고 恒常研究對象에 對하야 忠實하고 또 統術한 態度를가젓다 先生은『對象은生命잇는 統術的로 生覺하고 그對象과統術한 對話를하는氣分을 가저야한다』고말合하엿다 그얼마나 意味깁흔敎訓인가? 우리學徒의 번저 體得하여야할 基本態度인것을 누가 否定하랴

入學細規
木浦商業專修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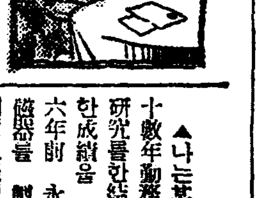
一、募集人員 七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廿五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廿七、廿八日
一、試驗場所 同學院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長生의魚種과 그榮養價値

【뮤ー닛히發同盟郵信】 長壽의 魚類일수록『비타민』을 만히含有하고 따라서 食料로서 榮養價가 豊富한것이라는說이南獨逸의學者의사히에 强調되고잇다 이見解에서 學者들은各種의 魚類의年齡研究에 從事하고잇스나 今日까지에 確定된데에依하면 鯉魚가 淡水魚中最長壽의 고기로五十年生命을가지는일도 드물지안타고하며 다음으로배암장어(鰻)가四十年、鯖魚가 十五年乃至二十年 연어가十四年이라고한다 하야 學者의한사람은 다음과가튼 意見을 말하고잇다。

『우리들의 研究에 依하야 고기는 長壽의것일수록 榮養價가놉흐다 例컨데 十二歲의연어는 四歲의大口魚보담『비타민』이 豊富하고 榮養價가놉흐기는 十倍이다 이와가티 魚類의年齡을 決定하여두는것은 獨逸과가튼 原料의 缺乏한國家에對하여서는 그食糧政策上 極히 重要한것이다』



▲特히 文學藝術을 理解하고 愛讀하는 人士에게 懇願합니다 小生은 今年二十五歲의 靑年이온바 文學에뜻을둔지十年 生活의不安定때문에 아직工夫조차마음것못해보고잇습니다 自誇가아니라 小生의作品水準은 現文壇水準에너넉히 達해잇다고 某文人은 保證합니다 서울에게신분으로小生을書生으로 採用해주시면 그리고 밤에라도 五六時間工夫할時間을 주신다면 한三四年間現文壇을後驚할때까지 工夫코저합니다 (SK生)

▲二月一日讀者社交室에 記載한宋鐵彭氏의案을 贊成합니다。朝報讀者諸氏여 (但二十歲以上二十五歲까지)宋氏의 提案을서로한번實行하여보시기로합시다 (京都에서 曹永仁)

▲宣川一讀者에게告함 貴殿이 所有한韓國郵票를 購買코저하오니 左記事項을 左記住所로通지하시요
一、郵票의枚數(同不同을區別할것)
二、얼마짜리郵票인지 郵票面에 記入한價格을 明記할것
三、消印(스탐프)잇는지업는지
開城府高麗町四七九 金水歡

▲延專交響明先生께 小生들이 願하는 音樂團을組織하얏습니다 全部現在學生들끼리組織하얏습니다 公演을하려나 全然아마츄어입니다 音樂團이라고일홈만이지 『첼로』도업고 大鼓도업는 音樂會입니다 그런데學校在學生이니만치 當局의許可가잇서야합닛까 (市史 好樂團)

▲나는某高麗磁器工場彫刻士로 十數年勤務。陶磁器에 對한化學研究를한結果、나는自身잇는優秀한成績을 내엿습니다그래서 五六年前 永登浦에서當時自營高麗磁器를 製造해보앗사오나 資本問題로繼續치못하얏습니다。그러나 猜忌心으로쓰지안습니다。方今나는 獨自의成功이어렵습니다 工業에 뜻잇는이는 차저주십시요나는 朝鮮의工業을爲하여 奮鬪하려합니다 小規模면幾千圓도 可能함 (姓名在社)

▲누구시든지 石器類或은土器類를 蒐集하시는분이 게시면그 數의多少를不顧하고 보고십사오니所藏하신분의 住所를알려주시오 또 그方面研究家이시면 더옥조코 그資料의交換或은 讓渡에도깁버서 應하겟습니다 住所만考別해주시면 本人이 차저가뵈옵겟습니다。
開城高麗町四四六 韓興洙

新刊紹介

▲아이생활 二月號 京城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發行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朝鮮農村副業讀本 楊在應著 京城府外 下往十里八八三 梁在天書店發行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朝鮮新聞 創刊號 東京市淀橋區上落合町二ノ六九二 朝鮮新聞社發行 定價一部三錢

▲月刊野談 二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二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交驩의밤
男女專門學校 卒業生送別音樂會

時日·場所
二月二十五日下午七時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卒業生招待券外에場內整理費二十錢均一)

出演樂士
梨花專門學校　京保合唱團
梨花保育學校　世專四重唱團
延專管絃樂團　延專四重唱團

惜別의밤

主催 延專學生基督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胃腸을强化
消化를促進하고 食慾을增進하는

恒常胃腸이弱하고、밥맛이 안나고 消化가납부고、오목가슴이뿌듯하고 胃가멍울한듯하야 잇고 또排便이順調치못하야서 榮養이不充分하고 血色이납븐분에는ㅡ アペチン錠이適劑라고하야 널니賞用되고잇다。

アペチン錠은 속히胃及腸壁에緊張力을주어서運動機能을 活動케하는同時에、消化液의 分泌을 旺盛하게함으로、前記와가튼 不快한胃症狀은 除去되고、食慾은 亢進되야 消化는佳良케되고、榮養分은體內에 잘吸收同化된다。

또 アペチン錠은 그成分인 비타민B及D 消化되기쉬운 蛋白質、클리코겐、레치틴 其他多種의貴重榮養素를 豊富히補給함으로 二重으로 榮養作用을하야 病原에對한 抵抗力은 旺盛되고、血色조흔 健康體로恢復된다。

食慾不振、消化不良、榮養障害、常習便秘、排便不調、發育不良、脚氣、乳兒脚氣、綠便、貧血、腸內異常醱酵、小兒消化不良、病後榮養恢復、等에好適하다。

藥價低廉
五五錠入(四○錢)
二○○錠入(一圓)
五○○錠入(二圓三五)
(約一ヶ月半量)
一○○○錠入(四圓五○)
(約三ヶ月量)

アペチン錠 (아페친)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000292

黃昏 【14】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네사람(四)

경재는 오늘 사온 책자를뒤적거리며 도련치지안은 책장을 칼로 베히고잇섯다

『무슨 책이예요?』

하며 현옥은 거진 경재와머리가 맛다을만치 갓가히 그겻헤 가서안젓다。

『뭐 쓸마한 책이라구 잇서야지요』

『아이 사못 죽으냔자(伏字)가 만은데……』

하면서도 현옥은 그책에대하야는 아무 흥미도 늣기지못하엿다。동시에 경재의흥미가 그책으로부터 자기에게로 옴기어오기를 이 무르닉은 처녀는 바라고잇섯다。

『그래도 산자가 더만치요』

하며 경재는 그제야 현옥을 보며 우섯다。

『그러치만 어데 쓸마한거라구 잇습듸까』

책이라고는 좀 들여다보든일이업는 현옥이엇지만 이러케할만한책이어서 못보는체, 책을 치밀함으로서 그의허영심은 애오라지 만족을 어드려하엿다

『그래도 보아야지요』

하는 경재의말이 자기의량심을 찌르는듯함을 늣기며 그는

『아이구 공부고 뭐고 인제골치가 압하서……』

하고 다시 다른방패를 든다

『안선생! 발서 늙으섯습니다。하하하……』

하고 경재는 삽시간 너털우슴을 치다가 다시 진실한제본색으로 돌아오며

『현대인으로 누가 번민이 업겟습니까만 그런것은 어떠하든지 이기여나가야지요』

『하지만 자연히 그러케되는걸 어떠 헙니까』

『그러나 까닭업시 되는일이잇습니까?』

하다가 경재는 문득생각나서

『참, 요전 남녀학생웅변대회에서 어느 녀학생이가 말한듯것이 참말 올흔말 이라고 생각되어요。요새 갑금 그 생각을 되푸리하게되는데요』

하고 그시 그때의 광경을 련상하엿다。

——그 녀학생은 제손으로 꼿나무를 심엇는데 얼마동안 잘자라드니 어찌된까닭인지 차차 시들어가기 시작하야 여러가지로 손질을 해주다가 결국 그 뿌리를 파보니 벌네가 들어서 뿌리를집혓슴으로 그놈을 파내어 발로 밟어버리고 다시 흙을무든후로는 꼿나무가 결과가러 잘자라나드라는것을 말하엿다。즉 그와가티 모든사물에는 원인이잇고 따라서 결과가생기는법인데 위선 그원인을 잘알어야 결과를 바로알아낼수잇고 원인을고처야 결과가 잘된다는것을 말하엿다。

『사실 나도 병이들어서요。헌데 딱한것은 무슨 병인지 알수업는것이에요。그녀학생은 제몸이아닌 나무에 병이든것까지 알어마첫다는데 나는 제몸의병을 저로서 알어내지못하니 딱할수밧게……』

하는 경재는 밥서 조금도 현옥을 빗대여두고 빗꼬아 말하는것이 아니엇다。그는 진정으로 자기자신이 어떠한 일홈할수업는 병에 걸려잇다고 생각하는것이다。그러면서도 그병을 곤칠방법이나 또는 적극적으로 곤처보랴는 성의가 한께 부족한것을 스스로 깨닷고잇섯다。

여기에 그의 고민이 잇고 또 고민이 더욱 깁허지는 리유가 잇다。

『아모리 조고마한일이라도 이것은 이까닭에 이러케된다고 그 리유를 따저낼때가티 유쾌한때는 업슬것이고 또 그보다도 원인을차저서 그것을 곤치는데따라서 조흔결과를 나케되는때는 더욱 유쾌할것이지요。즉 내병을 알어서 내몸은 이때문에 쇠약해간다고 그까닭을 캐어내기만해도 유쾌할것인데 더나가서 그병을 곤침으로해서 몸과정신이 함께 건전하게된다면 그유쾌함이야 더말할것두업겟지요。헌데 그것을 헤내지못하니까 늘 마음이 어둠에 사루접혀잇슬수밧게업지요』

『허지만 책만 보아가지고서야……』

아모 흥미를찾지안흔 이런 이얘기에서 현옥의말소리는 점점 가늘어저갓다。

『물론 그러치요。무엇보다 세상형편을 알려면 세상복판에 들어가봐야할것은 사실이겟지요。생각만은 농촌에도 가보고십고 공장에도 가보고십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행해내지못하는 것이 약한사람의 상례이니까 하다못해 공부라도해서』

경재는 이까지말하는사이에 우울해지지안흘수업섯다。

현재의생활에서 버서날수업는것이아니것만 몸소 새길을헤치지 못하는자기를 안타가히도 생각햇다。

하면서도 그는 저보다도 철신업리며 나잇스는 현옥에게대해서는일종 우월감을 가지고잇다。

고민과우월감! 그는 지금 이런범본된생각을 가지고잇는것이다

朝鮮映畵十五年

初創期에서現在까지 ——走馬燈에비친記憶——

① 白夜生

다른방면의일은 우리가 그러타를 말하고 그일의발전을위하야 만인이떠들고 헷지만 십오년이상이나 력사를가진 조선영화계는 아즉도 그것이 뭇의에 오르지안코 또저기에종사하는사람들은 이사회권내(圈內)로물러드리지 안은듯김이잇다

그것은 조선의 력사가잘말하는것과가티 가장 이땅의 문화발전에잇서서 업지못할 사람들을멸시하엿고 그들의 일을 파괴한데서 그런 봉건시대의 페풍이우리들로뭇수에박힌것을 볼수잇다

우리들이잡자고잇슬때 다른나라사람들은 무엇을하고잇섯는가 지금우리들의현실은 결국 우리들의력사가가저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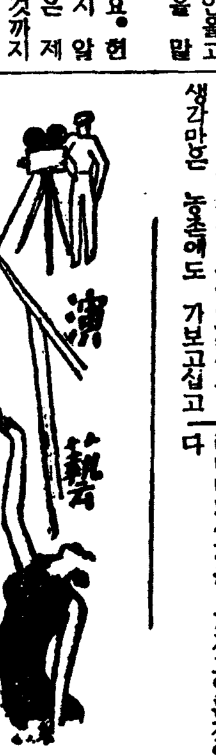
어찌햇든 활동사진이라는것이 조선에 드러온것이 역시 활동사진이 발명되지 몇칠되지 안는때다 그 삼십여년이라는 세월에 저들은 저만한 발전이잇섯고 우리는 아즉도 오전짜리 『네프』의 힘을빌지안흐면 얼굴을찡그려야보든 소위 지금의 조선영화를 낫코잇다

여기에는 정치적 사회적배경 이야기가되나 그럿치만 너무도 조선이 이것을 영접할줄모르고 장래에 여기에서밧는 큰영향을 생각치못한까닭이다

첫재로 이때까지 조선사람의 사업욕이라는것의 그정체를 모를일이다

어떠한것이 민족의 장래에까지 미칠것인지 어떠한것이 이땅에 큰것을 건설할것인지도 모르는 늣김이잇다 이것을 그사회전반이 깨엿다하되 아즉도 깨이지 못한중이다 그래서 조선의영화는 『엉키』속에서 자라지도못하고 면목만을 이어왓다

여기서 그 초최한 조선의영화계의엣일과 지금일을 보살펴보고자하며 이조선영화계의 압날을 점처보자는말이다



暦

二月廿一日(金)
正月陰庚寅大(廿九日)
癸酉·金·畢·危

●祭祀安葬에宜함
●立春五日(舊十三日)
●雨水二十日(舊廿八日)

二十日(木曜)

◇午後六時 兒童劇『英順의눈물』 全一景三場 配役 昌洙……鄭健洙 英順…(창수의동생)…韓貞媛 玉順…(창수의동생)…趙敬淑 仁淑…(영수의동생)…吳千任 慶姬…(영순의동생)…劉永順 부인…成靜得 야경군…辛珍華 京城放送兒童劇硏究會 指揮 南基薰 伴奏 鄭炳完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 孝雄
◇同七時三○分 農村講座 金 雄 珏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美化 徐山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分 古談『奇緣』 白 岳
◇同九時 城主푸리外 一、새타령 二、六字백이 三、城主푸리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劇
◇同七時三○分 講演
◇同八時 (東)箏曲
◇同八時二○分 (東)長唄
◇同八時五○分 (東)連續講談

二十一日(金曜)

◇午後○時○五分 映畵이야기『후라다스의개(犬)』 朴應冕
◇同三時一五分 主婦時間『어린이와讀書』 尹聖相
◇同六時 童謠齊唱 旺新學院兒童 伴奏 金泰哲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算術』 李 俊 興
◇同時三○分 農村講座(二)『農業經營의改善』 金 雄 珏
◇同八時(大) 피아노獨奏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幻想曲 作品四十九 F短調 二、뱃노래 作品六十 F샤長調 三、스케르쪼 作品三十九 C샤ー프短調(以上쇼팡作曲) 레오니ー드·크로이처
◇同八時三○分 將棋打令外 一、將棋打令 二、바위打令 三、興打令 四、방물打令 五、금강산打令 六、달거리
◇同九時 回心曲 崔貞植 河龍男 金壽男

第一放送
◇午前一○時三○分 (大)어머니時間
◇午後○時○五分 이야기
◇同一時四○分 (大)小學生時間
◇同三時一○分 (東)敎師의時間
◇同六時 (大)童話
◇同七時四○分 (東)講演
◇同八時三○分 小唄
◇同八時五○分 (東)連續講談

二十二日(土曜)

◇午後○時○五分 (東) 아코ー디온合奏 一、行進曲『十字軍』스ー자作曲 二、組曲『코ー가사스의風景』으로부터 村落에서…어빠놉作曲 三、圓舞曲『스페인』……빠르트토이펠作曲 四、봄가行進曲…도스탈作曲 指揮 眞野 泰光 돔보아코듸온쎈드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三라홈이야기』 羅 元 和
◇同六時 兒童劇 日曜日 序景 一場 鄭英曲作 配役 어머니……희순……(그의딸) 明玉……(희순의동무) 희순의옵바……아범…… 新興童人會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國語 田川 孝雄
◇同七時三○分 農村講座(三) 農業經營의改善 金 雄 珏
◇同八時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曲 作品五十二五(小夜曲)G長調 —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로맨사 第三樂章 메누엣트 第四樂章 론도 二、絃樂四重奏(皇帝變奏曲)G長調中에서 —하이든作曲— 第一빠이올린 桂貞植 第二빠이올린 朴泰喆 비올라 安聖敎 첼로 金仁洙
◇同八時三○分 一、꿍패타령 二、방아타령 三、청춘가 四、늴리리야 五、사발가 六、모시당풀 七、노래가락 伽倻琴 趙柳色 杖鼓 朴秋月 細笛 高載德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引帝離』 二、唱劇調『沈淸歌中父親離別하는데』 金柳鶯 鼓手 韓成俊

演劇女優金福鎭

老婦少女에모다能爛타

한 會에 잇는 會員을 禮讚한다는것은 내 自身 크게 惶悚한 일이나 오늘날 硏究、興行을 다 털어노코 演劇女優로써 꼽는다면 金福鎭이 넘버ー원이라고 하지 안흘수가 업슬것갓다。

나는 그가 京城時代 童謠에서 보혀준 능난한 演技에 感嘆한바잇섯지만 그는 劇硏에入會以來 노라에서나 버드나무선 洞里에서나 紅髮에서나 또 祭祀에서나 그演技는 每番進展을 보혀주엇다

그는 少女의役이나 中年夫人의役이나 老役이나를 勿論하고 自己가 마튼 役을 살리기에커ㄷ다란 努力을 하는同時 또나타나는 그演技가 果然 능난하다는 稱讚를 보내기에 앗갑지안타 伊太利女優엘레오노라·듀ー제가六十에도少女役을 능난히 햇다는것은有名한 演劇史의 에피소ー드이지만 金福鎭은 그의力量이 넉넉히 이에려役을 살리기에充分하다 버드나무선洞里風景에서의 그의少女役을보라 아직도 十五六歲의 少女가 안이든가? 그리고 祭祀의 老婆를보라 비록목소리를變하는데 多少無理는잇서지만 演技만은 老役으로 훌륭하지 안흔가?

그뿐아니라 『노라』에서 어련이를 더리고 재롱하는 場面이랄지 그건 퍽 훌륭한 마당의役이 아니엿든가?

×

그리고 映畵에선 나는文藝峰을 第一조하한다 첫재그것은 스크린에 나타난 그印象이 賤해보히지 안는때문이다 勿論그役이 그리해야 할演技를 그리케 보혀주는 때문도 되지만은。그런데 文藝峰은 表情이업다 그게큰 恨이다 石膏로만든듯。조곰도 얼골의 근육이 움지기를 안는다。이것은 特히 東洋男女에 잇서서 커ー다란 通弊지만 藝峰은 그게좀度를 지나친다 좀더 美學과繪畵와 表情에對한 硏究가必要할것이다。世界名優史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美學、彫刻、繪畵、表情等을 硏究하기 爲해서 博物館으로 圖書館으로 헤매엿는지 알수잇거니와 적어도 名優가되려면 이런智識이 잇서야 한다。

그래도 文藝峰은 애처러운印象을 주는데서 一般팬의 人氣를끈다。이것마저업서드면 文藝峰은映畵女優로서 스크린에 비칠수가업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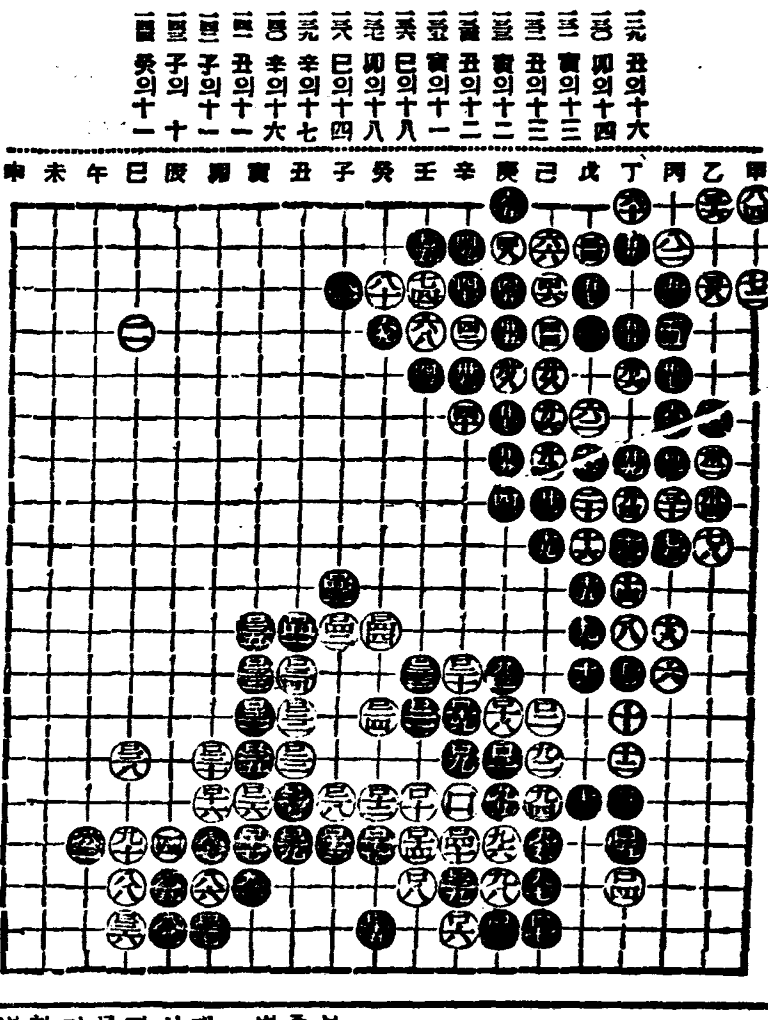
如何間 이런 缺點이 잇는데도不拘하고 나는 文藝峰을 조아한다 그것은 그의나희가아즉 十九로 將來가 요원한때문에發展性이 잇스리라는것과 어데지 애처러운 印象이 내맘을 끄는 때문이다。

—威大動—

圍碁對局譜 =9=

本社主催

白 權景爵
黑 張基默



●一二九 丑의十六
○一三○ 卯의十四
●一三一 寅의十三
○一三二 丑의十三
●一三三 寅의十二
○一三四 丑의十二
●一三五 寅의十一
○一三六 巳의十八
●一三七 卯의十八
○一三八 巳의十四
●一三九 辛의十七
○一四○ 辛의十六
●一四一 丑의十一
○一四二 子의十一
●一四三 子의十
○一四四 癸의十一

◆棊壇文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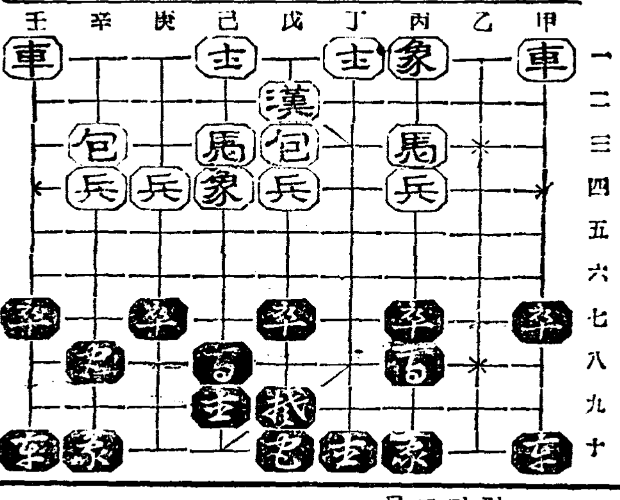
白이 巳의 十六으로 敵手를 取하고 巳의 十四로 退着하야 耳角保守할 이 時機에 相當하고 黑은 辛壬癸十五六白連長處를 包圍在目中이나 黑의 形勢이 捿近함으로 成功은 容易치못할듯 時局을 總括하면 巳午未七八九에 李俊邦이 自在하고 丙丁二三黑이 永眠은아니즉 黑의 不利點을 아즉 自樂지말지어다

將棋名手對局譜 (二)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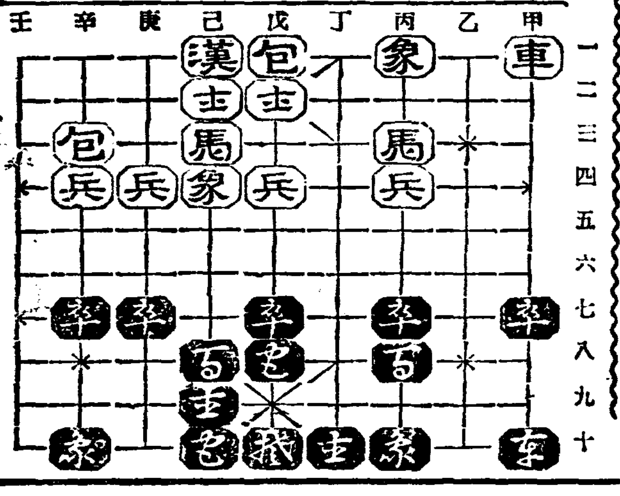
漢 手先 兵一减 李在鳳
楚 金漢榮

◀十手圖▶



◀二十手圖▶

己二士—己三
壬七包—辛七
壬一車—壬十打車
戊十卒—壬十打車
戊三包—戊一
壬十卒—己十
戊三漢—己二
辛八卒—戊八
丁二士—戊三
戊九象—戊十



대하증의害毒은 어떤것이며 그原因과療法은?

—누구던지읽으시라—

◆대하증의원인과 치료법◆

보통으로부인병하지만은 부인병에도그종류가만습니다。그중에도제일만흔병이 대하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갓치 대하증이라는것은여성의생식기에서이상한물이흘으는것인데사람을따라흐르는양이 만키도하고적기도하며분량이만키도하고적기도합니다。이런차이는부인의체질과 병세에따라서생기는것입니다。

이무서운대하증이생기는까닭은 대부분 림질이전염되거나 월경때에 부주의로무서운 세균이 국부에 들어가서상처를 내는것입니다。마지막으로 다시때에미균이들어가고헐고 고름이나오는 것과갓습니다 원래부인의국부는 조직과은외와습기등이세균의번식에천연으로적당한탓으로남에게전염만하는별한고히가업다하드래도 미균이부른손이나조히나옷이 그곳에닷기만하여도즉시안으로퍼저들어가게됩니다이런까닭으로남편에게조곰도못한성병이업는진부인거도 이병이잇스며또는월경국에 이르지못한어린처녀에게도 이가튼병이생기기쉽습니다

어쨋든지 이대하물이흘으게되면 벌서자궁병이잘못되는것입니다다발병당시에는비록 안색이 여전하고 몸이건강한듯하나하로이틀날이갈수록 만성이되여 무서운고질이되도 차차 살이빠지고 피가잘통하지못해서 화색이 낫부고따라서소위 냉증이라는것이 생기는동시에 병은점점깁히 안으로들어가서 치료하기가절대로어려운데까지 빠지게됩니다그럼으로 평소에항상몸조심을잘하시고만일 어병에걸이거든 초과예죽시 치료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다소오래된병이라도 조흔약을선택하야 자궁에서성신것드럼 여시계속하야 복용하시면 틀림업시완치할수잇습니다

이와가튼 자궁병을치료하기에제일적당한내복약『命之母』가잇습니다 이『命之母』로 모든자궁병을완치하시고 귀동자를 출산하시실레는 世人에好評과體狀이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자궁병환자가 잇스면 하로바삐 『命之母』를복용하시고 전쾌하시기바라나이다

애기를귀엽게 낫습니다

忠北鎭川郡梨月面 朴文興氏 實驗談

나는 빼찐물순과 대하증으로 결혼후九년동안 신고를하던중천만가지약을 다써보앗으나 조금도차도가업서서 비관을하던중신문광고에『命之母』가 자궁병에유효하다는과사를보고 마지막으로 한번주문하야복용햇더니 얼굴에 화색이도고 원기가나며 허리와 배압픔이낫으며 대하증이차차줄고 월경이고르게나오더니 一三삭후에 임신하야출산하고 불화하던가정이·평화롭게되니『命之母』가 자궁병에 절대적 유효함을신용하고 세상에 선전하는 중이올시다

(사진은박문흥씨부인과따님)

『命之母』는 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마는特히本舖로注文하실때는第代金을振替東京五○五○番으로또는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第一安全하고便利하오나適合한藥을指定코저하시는때는病勢를자세히記入해주시면代金引換으로適當한藥을付送합니다

進呈……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五厘切手부처서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로보내시든지또는藥書로申込하시는분에게三大醫學博士가揭示하야알기쉽게자세히쓴婦人病自宗治療書와命之母의說明書를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子宮出血	下腹腰痛
頭痛眩氣	히스테리	卵巢炎
白帶下症	赤帶下症	手足冷症
子宮痙攣	輪卵管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產前產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五○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ウテナクリーム

肌荒防止
適當한脂肪을包含하야
겨울肌荒을막고
봄若肌를도옵는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白色美
굉장한레몬
살바탕부터美白하게
美肌効果滿點인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化粧美
高尙한香氣와愛着
白粉이써잘밧고
化粧用으로一等가는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男子의面刀에도
脂肪中性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東京·久保政吉商店

11.2—4.2

道路品評美名下에 四十三萬名의 賦役

牛車의 出役도 八萬[illegible]餘臺

咸南道의 놀라운 統計

災民에고달푼負擔

【咸興】 흉작으로인하여 극도로피폐하여잇는 [illegible] 니와이제련 [illegible] 에서 작년중 도로품 [illegible] 共進會라는 이름으로 [illegible] 출역식힌 상황통계를보면 도로 출역장 [illegible] 에 출역호수는 구만이천사백구십이로서 출역인원수는 실로 사십삼만륙천이백오십칠명의 다수에 달하며 우차의 출역도 팔만칠백륙십이대에 달한다고한다

淸、慶道路着工

【淸道】 대구 달성 청도련락의 구청도로개수공사는 이서면국에서 방금 공사준비공작에 분망하거니와 그보다먼저 금천직하로 기공하게될 청도 경산간(淸道、慶山)도로는 비록 등외도로이나마 일등도로의 폭을만들어 장래 일등으로승격할 가능성을 가진도로이므로 청도연전을 것처 남성현(南省峴)으로 종과합게회아래 금춘사월경부터 착공하리라는대 이도로는 청도교통계의 대동맥선을 형성할간선인만치 일반의기대가 크다하여 경주(慶州)청도간도로의 웅령(熊嶺)에서도 금춘삼월에 개축공사를 시행할모양으로 이에대한부역인원은 칠천륙십인에 달하리라하다

咸南道救窮工費

◇六十二萬圓으로大削減되여

金津港等改修工事中止

【咸興】 함남도토목과에서는 련상년간 흉작으로 농촌어촌의경제가 극도로 피폐하고잇는 현상으로보아 례년보담도 궁민구제토목공사를 더욱 팽창의로 시행할필요를 절실이 늣겨 최초에는 아래와가티

一二三等道路改修 五六三、〇〇〇圓
北靑南大川改修 四〇〇、〇〇〇圓
金津江改修 一九五、〇〇〇圓
洪原西大川改修 三二、〇〇〇圓
前津漁港修築 一〇〇、〇〇〇圓

도합 일백이십팔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독부와절충하엿스나 총독부의 대사감을보게되여 김진강(金津江)개수공사와 전진어항(前津)수축공사는 부득이중지하기로 되엿스며 그외에 공사도 역시삭감되여 겨우아래와가티

道路改修工事 二〇〇、〇〇〇圓
洪原面大川改修 二〇、〇〇〇圓
北靑南大川改修 四〇〇、〇〇〇圓

합육십이만원밧게되지 못한다고한다

資本金百萬圓의 海陸運送社出現

朝窒과富田商會의合同으로

群小運送業者에致命傷

【咸興】 조질회사에서는 종래동사에서제조하는 비료등을 운송하려고 해륙량부에 운송부를두고 오로지자긔회사의화물운송에만 전용하고잇든바 이번대판에 본사를두고잇는 부전상회(富田商會)의 함남출장소와 합병하여 자본금 백만원이라는 방대한운송회사를 조직하고 오는삼월일일부터는 완전히 영업을개시하리라고하는데 금후부터는 일반화물도 전부취급할터이라고 함으로 서호진흥남간의 화물은 물론하고 부조선의 화물은 거의전부가 방대한자본을 가지고잇는동운송회사에 독점당할 필연한 형세에잇슴으로 함흥부군의 대소운송업경영자는 막대한 타격을 면치못하리라고 우려가마심한가운데 잇다고하는데 금후의 추이활동이 주목되다고합다

郡畜産係員暴行

三年前不正賣牛하理由로

郡民을呼出毆打重傷시겨

被害者側告訴를提起

【統營】 현직관리가 세금청구하려단이며 민간의의구부녀 간통하사건이 통영사람의 머리에서 떠나지난십사일 오후두시경에 통영군청축산계 기수김재만(統營郡畜係技手金在萬)은통영군원량면서산리(遠梁面西山里)에 거주하는김유용(金有用)을 삼년전에축우(畜牛)를 불정매매하엿다는리유하에서 군청에 호출하여 약세시간동안이나 구타하여 전신에상처를 내이고 전긔 김유용이가 관리에게 반항한다하여 측산계원이 총출동하여 협력구타하여 피해자는 그근처에 잇는 삼의원(森醫院)에서 치료중이며 피해자의 친족들은 축산계관이의탈선적 행위에분개하여 사주일진단을어더 통영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한결과 피해자를 취조중이라한다

바 피선역원은아래와갓다고한다
◇役員…委員長李寅哲 副委員長 紹南極 庶務金南極 財務美順 三 委員 嚴朴燦外九人

群山府戶籍係서 無籍者就籍斡旋

【群山】 군산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로동자가 만흔관계로 그들중에는 다대수가 무적(無籍)자인관계상 왕왕히 무적으로인한 히비극이 연출되던바 군산부 호적계(戶籍係)에서는 그들의 편리를 돕보기위하야 방금 오는삼월 말일까지 취적(就籍)허가를 하야주는 중이라하는바 무적자는 지급신고를 하라하며 빈곤자에게는 대서로도 돕지아니하도록 부호적게에서 편의까지 보아준다고한다

任置한公課金을 自身이乘夜竊取

責任을主人에게轉嫁시키러다

警察取調로正體暴露

【金泉】 현직에잇는 면회계원(面會計員)이 지세、부가세기타공과금을 출장징수하야 그것을 주점에맛겨두고 밤이되여 주인이 곤히잘든틈을 타서 그돈을도적히고 그책임을 주인에게 넘기려든 사실이 경북김천에서생기엿다 김천군조마면(金泉郡助馬面)에회계원으로잇는 배성귀(裵聖貴)는지난팔일 동면신왕동(新旺洞)등지에 출장하야 극도의준궁도 돌아보지안코 지세등공과금을 섬회가티 동확징수하여 능히면사무소까지 돌아갈시간의여유가잇슴에도 불구하고 술이취한듯이가장하고 공금약사백원을 동면신왕동 리봉현(李鳳鉉)주점에다맛기엿다가 주인이 끈히 잠든틈을타서 그돈을 도적하야 동리입개천 모매밧헤 뭇어두엇다한다 잠을깨여 이를발견한 주인은 즉시동면주재소에 고발하엿든바 이급보를접한 소관김천서에서는 김사법주임이하 경관대가 출동하야 혐의자로 전긔 배성귀(裵聖貴)와 주인 리봉현의처 박옥녀(朴玉女)(假名)와맛츰 멀이 진주(晋州)에서 단이러와잇든 주인처남 박춘식(朴春植)(假名)등 삼인을 인치하고 철야엄중 취조중이든바 지난십팔일에 드듸여 범행일체를 자백하엿스므로 전긔 박옥녀와박춘식은 무사석방되고 배성귀는불일송국하리라고한다

仁興公立普校 學父兄會定總

【永興】 함남영흥군 인흥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에서는 지난십오일 오후한시반부터 제륙회정긔총회를개최하고 의안을 토의하엿는바 그중에도 가장일반이 요망하야 년년이 동회의 현안으로써 내려오든 동교운동장확장의건에잇서서는 신중한토의가 잇섯고 총공비 이천원의 예산으로 목적관철에매진 할터이라는

福溪劒拂浪間서 旅客車가脫線

【元山】 십구일오전구시십이분차는 오전십일시경 복계(福溪)역과점 백삼십사키로 (복계-검불랑간)지점에서 탈선하엿는데 원인은 목하조사중이며 승객과승무원급 화물에는 별이상이업서 대행이엿다고한다

水原三一學校에 風琴一座寄贈 李起煥特志

【水原】 당지삼일(三一)학교에서는 각학교에 풍금이 부족되여 놀고롱으로지나오던중 이번귀향한 이응비혁사리과착(李起煥)군은 지난시월일 자긔의 모교(母校)인 三一학교를방문하얏슬때에 마침창가시간으로 풍금의부족됨을보고 이를유감으로느기고 자긔집으로도라와 고용주에게서 매일월급에올가지고 다시전긔학교장 김병호(金炳浩)씨를방문하고 약소한것이나마 풍금일좌를구입하야달라고 현금백원을긔증하엿다한다

洪城支局主催 美華刺繡講習

【洪城】 본보홍성지국주최와 홍성감리교회 후원으로 김문규(金文圭)김정자(金貞子)량씨를 초청하여 이월이십일부터 홍성읍내예배당에서 긔모식 미화자수강습회(起毛式美華刺繡講習會)를개회키로 되엿다는바 일반가정부녀제씨는 다수참가하여주기를바란다하며 규정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一、講習種目 風景 動物 其他實用作品各種
一、講習場所 洪城監理敎會
一、講習期間 七日間(每日午前十時부터午後四時까지)
一、申請場所 朝鮮日報社洪城支局 洪城監理敎會
一、會費 一圓

平南一月中傳染病累計

發生一七六名中 死亡者가四七名

【平壤】 평안남도위생과에서 조사한 일월중의 평남도내전염병의 수자는 다음과가타서 총계일백칠십륙명의 발생환자중에서 사십칠명의 사망자를 보앗고 이월에드러서 더욱 창궐하고잇는상태이다

종류별로 표시하면이러하다

▲赤痢一名(死亡一名) ▲腸지부스四九名(死亡八名) ▲疫痢二〇名(死亡三名) ▲發疹지부스四名 ▲猩紅熱四四名(死亡一二名) ▲지프테리아五五名(死亡二二名) ▲流腦六名(死亡一名) ▲合計發生一七六名(死亡四七名)

紙幣偽造犯人 開城署에被逮

【開城】 근일 개성에 위조지폐(僞造紙幣)가 류행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래 개성서에서는 극력으로 수사중 지난십오일에 개풍군 령남면(開豊郡嶺南面) 방면에서 혐의자 두명을 검거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범인의 여당검거도 시간문제라하며 십오매의 위조지폐와 석판인쇄긔도 압수하엿다고한다

平壤放送局 三月부터放送

【平壤】 평양방송국긔지는 평양부에서 매수하여 무료로 조선방송협회에 대여하기로 결정되여 정식으로 조선총독에게 인가원을 제출하여 인가되는대로 모든준비를 하여삼월 상순부터는 가방송을 실시하게될터인바 초대국장으로는 위선 평양체신국장이 멋지 대리할모양이라한다

鴨綠豆滿兩江에 十四國際橋架設

七年間繼續事業으로

【安東縣】 조선과만주와의 압록두만량강의 국제교는 이래 량국이 협의중이든바 만주국측에서는 벽동、초산、중강진、혜산진、무산、회령、경흥 (碧潼、楚山、中江鎭、惠山鎭、茂山、會寧、慶興)등칠교를 가설케되고 조선측에서는 창성、자성、강계、후창、신갈파진、온성、경원 (昌城、慈城、江界、厚昌、新乫坡鎭、穩城、慶源)등칠교를 가설키로 협의가되여 조약조인은 오월경이라한다 준공후는 교통、경찰、세관은 량국이 련합관리키로되리라한다

宣川基靑總會

【宣川】 평북선천녀자긔독교청년회(宣川女子基督敎靑年會)에서는지난십칠일 오후칠시부터 동회관내에서 회장 김영도(金永道)씨사회로 정긔총회를 개최하고 각부보고가 끗난후 임원을 다음과기티 선정하엿다한다

會長 金聖姉 副會長 金永道 總務 吳順愛 書記 金採鍊 副書記 鄭基蓮 會計 金採鍊 副會計 金昌善 敎育部長 金剛石 宗敎部長 李春化 社交部長 金福順 音樂部長 金孝滿 體育部長 李順德 文藝部長 鄭賓信 經濟部長 朴元明

八院取扱所 郵便所로昇格

【寧邊】 통신긔관의 완비는 그지방발전에 밋치는바 영향이다대한것이다 평북 녕변군 팔원면 룡산시(寧邊郡八院面龍山市)에는 수년전에 우편취급소가 설치되여잇섯스나 우편의 집배를 못하게되여 역시불편이 만어섯든바 금반 소창검찰소장(小倉檢察所長)의 꾸준한활동으로 린근면민이 갈망하고잇든 우편소로 승격케되여 지난십륙일오전십일시부터 팔원면사무소(八院面事務所)구내에서 성대한 축하연이 잇섯다한다 동우편소의구역은 팔원、소림、봉산(八院、少林、鳳山)의 삼면으로 지난십오일부터 사무를 개시하엿는데 이로서 종래 말성이만튼 위탁배달(委託配達)을 일소케 하엿다고한다

◇…既報城津尖발靑年會音樂會盛光景

新設普校七個校에 既設校는二倍增級

十個年의繼續的事業으로

平壤第一敎育部普校擴充案

【平壤】 평양부제이교육부회에서는 이십일일오후한시부터 부회의실에서 보통학교 신설십개년계획수립에 대한 중요한토의를 하고저 집합되는데 이계획안으로는 십년동안에 보통학교칠개교를 신설하는 동시에 긔설학교에는 학급을 증가하여 십년후에는 현재 백이십학급의 삼배로 확장하는 리상적안건으로 부민은 크게긔대하고 잇는터이라한다

元山驛乘降客 一月中에皆激增

【元山】 관북의관문인 원산항은 지난일월중에 얼마나한 손님들이 드나들엇는가 선편은 그만두고라도 긔차편으로 래왕한인원을 원산역에서 알어본다면 작년동긔에 비하여 승객은 사천칠백사십륙명이나 늘엇고 강객(降客)은 일만이천팔백오십칠명이나 대격증하엿스며 수입에잇서서도 칠천사백십원이나 증수되여 약일할칠분강이나 또새로운 혹자를 보엿다고한다、이제 승강객의 등급별과 수입을 본다면 다음과갓다

乘客人員 二等 二七〇 三等 二五一四七
降客人員 二等 三四六 三等 三五一〇六
收入 四一、八一七圓四二錢

咸北鰮油組에서 共同作業場設置

【淸津】 함북온유비 제조수산업조합에서는 십일년도사업으로어항부근에다 경비 칠만원으로 창고급 공동작업장(共同作業場)을 건설하리라는바 만일실현이 되는때에는 일반온유비제조업자는 막대한 편리(便利)를 보리라고한다

先親의遺志바더 巨金喜捨한兩氏

城津의康亨哲氏 四千圓土地提供

私立普信男學校에

【城津】 선친의 유지에조차 현시가 사천여원의 토지를 교육긔관에 희사한 청년독지가、일즉이 성진신입계에 헤성가티빗나든 고강경락(故康敬洛)씨는그생전에 육영사업에 큰뜻을 품고 성진사립보신남학교(城津私立普信男學校)의 경영의 책임을 마트러고하든중에 불행이 그큰뜻을 품은채로 작고하엿슴으로 성진사회에서는 이를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여오든중 전긔강씨의 장남 형철(亨哲)씨는 성대(城大)를나온후 성진에서 중앙의원(中央醫院)을개업하고 원장으로시무하는일방 선친의 유지를 승하야 그학교의 경영의책임을 맛기로하고 우선시가 사천여원의 토지(畓)삼천사백여평을 희사하엿는데 동교리사회에서는 씨를 교장으로 취대코저 목하인가신청중에 잇다고한다 이씨는 왕방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보신남교는 명치사십삼년사에 개교한학교로 함북에서 제일력사가 오랜니다 그간 교회 보조로 근근히 유지되여왓스나 이제는 년오백원가량의 보조밧게안들 아니라설립자 구려선교사도 귀국하고 보조는 점점주러들게 편임으로 학교의 장래가 단념러될니다 제가금번 약의 토지를 학교에 밧친것이 절대 저의 단독의사가 아니요 다만 선친의 남은 뜻을 일부분 실현한것뿐이 올시다 교장직에대하야는 아마리사회에서 인가신청을한 모양인데 제가 엇지 그직을 감당합닛가 하여간 학교를 위하야 로력할각오는가지고 잇습니다 현재륙학급에 사백오십명의생도를 수용하고잇는데 교사도 증축하는일방 보통학교로 승격운동에전력을 다하여야 되것습니다 성진유지의 절대후원이 잇슬것을 밋고 안심합니다』운운

◇寫眞…康亨哲氏

安岳의元景燮氏 現金三千圓寄附

公設運動場設置費로

【安岳】 황해도안악읍판팔리(安岳邑板八里)에 사는 원정옥(元楨玉)씨는 안악면장(安岳面長)으로 다년간 민간긔관에 헌신적 로력을하여왓는데 재작년봇터는 안악공회당설립에 필사의 로력을 다하야 사업에 진력하얏다 더욱히 스포-쯔에 리해가 철저하야 공설운동장도 작년에 완성을 보게되엇는데 약이년간 위암으로인하야 고심하더니 지난일월십사일에 불귀의 객이되고 말엇는데 씨의 장자 원경섭(元景燮)군은 그부친의 유지를 밧들어서 곳 삼천원을 안악축구단에 내어주어서 공설운동장의 불비를 완성케하기위하야 설비금으로 회사하얏다 그런데 고원정옥씨는 경성법학전문학교출신으로 안악군속으로다년간 근무하다가 면장으로의업무가 관민간에 대단히절찬을 밧든이로서 일반이 애석하게생각한다고한다

◇寫眞은 故元楨玉氏

平壤支局主催의 野談과漫談의밤

於白氏記念館

【平壤】 본사평양지국에서는 오는이십이일 오후넓시부터 부내 리문리(里門里)백선행긔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신춘야담과만담의밤(新春野談과漫談의夜)을 개최키로 되여 목하 준비에분망중이다

이밤에 등장할연사는 사계의 권위가인 신정언(申鼎言)씨와황재경(黃在景)라씨로 한밤의 위안을 드리고 그리고포복절도할 "만담" "야담"을 한거번에소개하게되것이다

종체로 대하기어려운 이모듬을 손곱아기다렷다가 자미잇게 드러보라

이밤의 연제와 담임선생은 다음과갓다

◇演題及演士

—漫談—
1、조선말가튼英語
2、웃고살가울고살가 黃在景

—野談—
兩大將과兩美人 申鼎言

西城里發展따라 『뻐스』路線을延長

【平壤】 평양부에서는 서성리(西城里)방면의 급격한 발전에따라 교통량의 격증으로 『뻐스』선로를 연장하기로되여 이십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서성리주민의 편리는물론 서성보통학교(西城普校)통학생들에게 만이편리하겟다한다

江西郡下의火災 草家五間全燒

【江西】 지난팔일오후아홉시반경 강서군 강서면 정화리 김대규(江西郡江西面靜和里金大奎)의 헛간에서 원인불명의 불이나서 초가이동오간을 전소하엿는데 금년에는 더구나 겨울한발이심하여음료수조차 업는관계로 강서소방조원과 경관수십명이 진화에노력하엿스나 물이업서 속수무책이엿다고한다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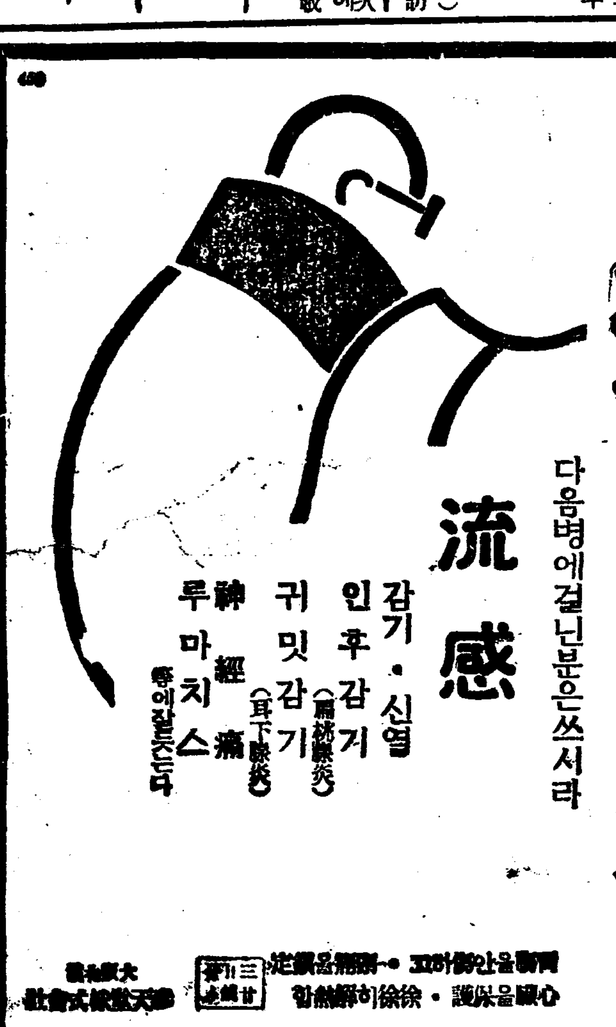
▲石川淸深氏(殖銀沙里院支店長) 新任人事次本報沙里院支局來訪

謹告

本欄揭載小說『笑欠頭의死』는 事情에依하야 今日本紙第三面에 轉載

鎭興 新春擲柶大會

▲日時 陰正月一日午前九時
▲場所 男子部兄弟商店 女子部郵元吉商店
◇主催 朝鮮日報鎭興支局
◇後援 鎭興商務組合



서울대표의 헤부린 ヘブリン丸
다음병에걸닌분은쓰서라
流感 감기·신열 인후감기(扁桃腺炎) 귀밋감기(耳下腺炎) 神經痛 루마치스 等에잘듯는다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30 .50 1.00

노-신의 조흔點은
먹으면……곳아픈同時에、머리에 疲勞를恢復식히는……이두가지다。
더구나胃腸等에는勿論、安全하고連用하면頭腦뿐아니라、心臟까지도補强하는効果가잇다。이것이야말노完成된模範的頭腦藥이라고말하는所以다。
頭痛과疲勞에 ノーシン
三十錠·五十錠·一圓·二圓

아지노모도 味の素 (登錄商標)
바로말하자면 몬저입맛부터깁부게하야지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모루히네 其他痲藥中毒者에
福모나-루의特徵
一、効力이迅速하고禁斷症狀의苦痛을緩解하고安靜을주는모르히네同類似痲醉藥의注射回數와用量을顯著히激減식힌다
一、長時間作用이持續性으로서禁斷症狀의發現을抑制하야治療에何等의嫌忌할만한症狀을일으키지안코一方夜間의安眠食慾增進體力의增加榮養健康을顯著히恢復하고愉快히自然裡에드듸여離藥케한것이다
包裝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福 모나-루 MONAL FUKU

小作調停令改正 그影響에關하야

辯護士 辛泰嶽 (二)

이미發生한 民事的爭議에對하야 法에依한 裁判보다도 社會的實情에 適合한 調停으로써 이爭議를解決하자하는것이 小作調停會의 根本義라함은 旣述한바이다。그런데 이에서다시 一步를 進하야 裁判所에서 行하는 嚴格한 調停手續보다도 더욱 平和的인 解決方法을 講究한것이 이에서말하라고하는「勸解」이다。即調停令第十二條에「裁判所는事情에依하야 府郡島小作委員會 其他 適當하다고 認하는者로하야곰 勸解를하게함을 得함」이라고하야 調停申立을 바든 裁判所는 境遇에 따라서는 이를 農村의 實情에 밝은 다른機關으로하야곰 勸解를 식혀보기도한다。이러한勸解는 첫재 府郡島小作委員會로하야곰하게하나、때에따라서는 裁判所가 勸解를함에 適當하다고 認하는 私人으로하야곰 勸解를 식히는일도잇다。이것은 地方의 名望家로서 調停의 經驗과 手腕을 가진 私人으로 하야곰 이를 하게하는것이 實效가 만흔일이잇는까닭이다。

이러케하야 勸解가 成立되엇슬때에는 勸解者는 當事者의 協定條項에 關하야 調書를 作成하고 當事者 又는 總代로하야곰 此에 記名捺印케한다。이勸解는 裁判이나 調停과달라서 强制의 힘은 업다。따라서 勸解는 成立되엇스나 當事者의 一方이 그勸解의 協定條項을 履行하지안는때는 아모實效가업게된다。이缺點을補키爲하야 同令第十二條의 二로「勸解가 成立될時에 當事者 又는 總代는 一年內에 限하야 勸解調書에 對하야 決定을 請求함을 得함」이라고 規定하얏다。그리고 다시 이勸解의 認可決定에 對하야 當事者가 다시 日可日否함을 禁하기爲하야 同第二項에「勸解認可決定에 對하야는 不服을 申立함을 不得함」이라고 하얏스며 나아가 同第三項에「勸解의 不認可決定에 對하야는 即時抗告를 함을 得」한다고 하얏다。그리고 다시 調停令은 되도록 當事者의 意思에 基하야 成立된「勸解」의 協定條項에 對하야 裁判所가 任意로 不認可決定을 하지못하게하기 爲하야 同令第十二條의 三으로「裁判所는 勸解가 顯著히 公正치 못하다고 認定할 境遇가 아니면 勸解不認可決定을 行함을 不得함」이라고 規定하야 裁判所의 決定範圍를 多少 拘束하얏다。即 될수잇는대로 勸解條項그대로 裁判所가 認可하도록하게하자는것이 今番 改正의 趣旨이다。

이러한 手續을지나 그 認可의 裁判이 잇게되면 그 勸解는 裁判上의 和解 即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게되며 이를가지고 强制執行을 할수잇도록되엇다。이것은 생각하면 勸解가 當事者의 意思에 基하야 成立하는以上 그것을 履行식힘은 當事者에게 아모 억울한것이 업슬뿐아니라 도로혀 한번 決定한일에 對하야 그것을 履行치안는 者를 强制하는 意味에서 事에 適合한일이라고할수 잇나니 그러나 調停이 裁判所에 專任케된 根本理由에 基하야 이를觀察하고 다시 小作委員會나 又는 勸解의 任을 맛는 私人이 그를 行할때 그들의 大部分이 地主와 接近할지언정 小作人과 接近한 境遇는 稀少할것을 想到하면 吾人은 그勸解의 協定條項을 그대로 履行케하는 今番의 改正이 반다시 조흔 結果만을 齎來하리라고는 斷言키難하다。따라서 前記한 同令의 第十二條의 三의 規定은 너무 過한 規定인가 한다。

(三)當事者의 期日出頭의 强制 調停制度는 반다시 當事者를 調停의 呼出에 應케하는것은 아니다。그러나 調停令第十五條第二項은 正當한 事由가 업시 出頭를 拒否하는者가 잇슬때에는 ……이번에 다시「同第十五條에 一項을 附加하야 調停期日에 調停申立人이 正當한 事由업시 出頭치안을時는 其調停申立을 取下한것으로 看做함」이라고하야 함부로 調停申立을 하얏다가 出頭치안는것을 防止하얏다 이는 實로 適宜한 改正인줄안다 (續)

때는진生色! 무슨所用? 供給圓滑目標로 煉炭製造力發揮

品不足恐慌裡過冬하고나서 結局消費者만不利益

그동안 過冬에잇서 京城을 비롯하야 各地에 煉炭恐慌이 생기어 例年에 드믄 酷寒으로 말미암아 都市住民의 苦痛이 甚大하얏다고함은 累報한바이어니와 煉炭이 그와가티 供給不足을보게된 主要한原因은 昨年十二月에 朝鮮煉炭株式會社의 成立에依하야 朝鮮煉炭의 統制가 實施되게 된때문으로 煉炭製造의 原料인 피치의 豫約이 거의되지못하얏슬뿐만 아니라 生産設備가 不充分한 關係이엇다 이에對하야 消費大衆의 煉炭統制에 對한非難이 相當한데 겨울이 지나간 今日에일으러 朝鮮煉炭에서는 工場全能力(코섹스 一日 十二噸 角型煉炭 二百二十噸)으로 製造하야 需給을 圓滑히할터이라고 한다 그래서 一月以後의 出炭高는 京城七千二百噸 平壤一萬二千噸에 達하야 요새 氣溫도 上昇하야서 供給不足이 緩和되고 잇다는데 一般煉炭統制의 弊害에 對하야 非難이 만타고한다

品不足의 緩和企圖 朝鮮煉炭에서

朝鮮煉炭會社에서는 今冬의 燃料不足을보고 一月以來 工場의 全能力(코섹스 一日十二噸、角型煉炭 二百二十噸)으로 製造하고 昨年에 倍加한 需要에 充用한바 그結果 昨年末에는 氣溫의 上昇에 伴하야 供給不足은 매우 緩和키로 되엇스며 同社의 一月以後 出炭高는 京城七千二百噸 平壤一萬二千噸에 達한다고

大邱、仁川、全州 販賣機關을設置

朝鮮煉炭會社에서는 昨年十一月 創立以來 販賣의 合理化를 圖키爲하야 京城、平壤에 販賣匿名組合을 組織하고 다음에 新義州 大田、元山、開城에도 組合 또는 特約販賣店을 設置하야 販賣網의 擴充을 하엿는데 다시 大邱(個人) 仁川(組合) 全州(個人)에 各販賣機關을 두기로되야 大邱、仁川은 이미 決定하고 全州는 二十日 黑木社長이 同地에 出張하야 決定키로되엇는데 이로 同社의 販賣網擴充은 一段落을 告할것이라고한다

中旬對外貿易 入超二千二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二月中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七一、〇〇九
輸入	九三、三八四
合計	一六四、三九三
入超	二二、三七五
一月以後入超累計	一三三、七四四

金組貸付의 利率를引下 廿日聯合會發表

朝鮮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二十日付로 貸出利率을 내려가지고 即日로 實施케되엿다 即다음과가티 普通長期貸付에는 二厘 普通短期貸付에는 三厘 當座貸越에는 日步二厘、手形割引에는 日步一厘씩 모두 내리기로되엿다 이번의 利率은 一般金融市場에 影響如何로 되는것이아니라 聯合會의 獨自的 業績에 딸아서 剩餘金을 어더 貸出에 利率을 引下하여서라도 資金放出의 餘裕가 잇는때문이라고한다

普通長期貸付	年	六分四厘	二厘低
普通短期貸付	年	六分四厘	三厘低
當座貸越	日步	一錢八厘	二厘低
手形割引	日步	一錢七厘	一厘低

貨物宅扱 朝鮮도立案 目下準備中

朝鮮鐵道局에서는 鐵道省이 小荷物運送의 宅扱制度를 實施한 昨年十月 宅扱規則의 一部를 改正하는 同時에 宅扱料金의 低下를 圖하야 來年度에는 그 集配區域의 擴張을 하는等 運送合理化를 보고 朝鮮에도 宅扱制度를 實施하라고 目下 鐵道局에서 立案의 準備를 하는데 今年中에 實施할 內意잇는대로 即近年 日本內地 朝鮮이라고한다

朝運鐵道小荷物 取扱所增設計畫

朝鮮運送會社에서는 今月廿一日로부터 鐵道小荷物取扱所를 다음과가티 增設키로 決定하고 準備가 完了하엿다고

京城=南大門、西大門、練兵町
大邱=本町、開城=南大門、鎭南浦=三和町

上旬鐵道荷動 二月上旬

鐵道局線荷動은 大概良好하야 總計 二十一萬四千九百四十二噸의 發送으로 豫想 二十二萬噸에는 達치못하얏스나 前年同期보다는 六萬二千五十一噸의 增加인데 그中 主要貨物의 發送噸數는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噸 △減)

種目	發送噸數	前年同期比較
米	一六、三三〇	△四、六四九
正租	七、六八一	二、〇四九
粟	一、三九九	三九一
大豆	四、三〇一	一、一二四
雜穀	三、〇〇四	六〇三
生果野菜	三、六〇四	一、四〇三

滿鐵運賃是正 交涉經過에對하야 佐藤滿鐵營業課長談

歐亞連絡運輸會議準備協議會에 갓다가 歸任한 佐藤營業課長은 滿鐵運賃改正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滿鐵運賃改正은 奧地開發及全滿鐵道運賃制度統一을 目的으로한것으로 社線은 不增收、不減收이나 總局線은 六百萬圓의 引下임으로 奧地取引上 大貢獻이 잇슬것이다

社線改正運賃은 遠距離를 引下하고 近距離가 多少 引上되어 朝鮮關係에 잇서는 不利益인 境遇도 잇스나 遠距離行이 低廉함으로 奧地直接取引에는 相當히 有利하다

運賃改正으로 朝鮮貨主負擔增大事項에 對하여서는 朝鮮貿易에 及할 影響이 큰 事實을 詳細說明하야 運賃引上緩和를 依賴하고 왓다

送金手數料統一 支店銀行徵收主張 朝銀과殖銀은異論

日本內地、朝鮮間의 去來에 因한 送金爲替의 手數料는 從來 無料로 되어잇는바 京城組合銀行에서도 이 手數料收入으로 槪算하면 半期 十萬圓以上에 達한다 이에對하야 支店銀行方面에서는 去來處의 手數料徵收及去來處以外의 手數料統一을 希望하는터인데 이에 對하야 朝銀、殖銀에는 異論이 잇서 目下 未解決의 懸案으로 되어잇다고한다

朝鮮琺瑯鐵器生産 統制覺書에調印 十九日釜山協議會에서

【釜山電話通】釜山商工會議所樓上에서 지난十七日로부터 열닌 日本內地、朝鮮琺瑯鐵器生産統制協議會는 日本內地의 高率限産要求提案에 依하야 當初부터 兩者의 主張對立으로 何等成果를 보지못하고 二日間의 日程을 延長하야 十九日 午後一時부터 다시 協議를 續行하엿스나 全面的 決裂의 危機에 逢着한 때문으로 和田商工省事務官과 碓井總督府商工課長의 兩當局者가 調停한 結果 午後八時에 調停이 奏功되야 곳 覺書를 交換하고 日本內地、朝鮮兩代表者間에 調印을 꿋내이고 同八時半에 散會하엿다고한다

甲은 朝鮮內業者 乙은 內地業者

▲覺書

一、乙의 生産基準總數 二萬四千三百十七個에 對하야 甲의 生産基準總數는 六千三百五十個로함
一、甲의 生産基準總數 品種別數量에 對하야는 乙의 品種別數量의 그 生産基準總數에 對한 比率을 尊重하고 昭和十一年 五月十九日까지 甲의 希望案을 作成한뒤 乙에 提示하야 協議決定할것으로함
一、其他의 事項에 對하야는 甲及乙의 代表者에 依하야 決定할것으로함
一、本統制는 前二項의 事項을 決定되는대로 이것을 實施키로하고 그期間은 一年으로함

鰮粕問題 繼續協議 廿日午前은休會

鰮油肥 新協定會議에서는 十九日 鰮油의 協定調印을 꿋마치고 二十日午前은 休會의 形式으로 粕에對한 各道別의 研究討議가 잇슨뒤 同日 午後부터 粕에對한 討議를 繼續中인데 相對會社의 決定問題、手數料率의 問題를 中心하야 各道의 意見이 區區한 形勢가 樂觀을 不許하는터이라고한다

臺灣産糖收獲 比二回豫想減收

【東京電話同盟】今年度의 臺灣産糖額은 지난十二月二十八日總督府發表의 第二回豫想은 千六百六十一萬五千피클이엇든바 그뒤의 甘蔗生育狀態로 보아서 千五百五十萬피클가량으로 다시 百萬피클以上의 減收가 豫想케되엇다 이原因은 天候의 不良으로因한것이나 一面甘蔗自體의 濟貨가 主因인듯하다고 今後를 注目하는터이다

長期信託申請 百年以上이七十萬圓

長期間에 亘한信託은 朝鮮에서 漸次增加의 傾向이며 日本內地의 長期信託이 增加치안는것에 對比하면 朝鮮獨自의 特異한 現象이라고할 觀이잇다 即 朝鮮信託의 受託契約을 期限別로보면 (以下單位千圓)

▲金錢信託

一個年以上	一、九二九〇
二個年以上	一六、〇〇八
五個年以上	二五四
十個年以上	三七二

▲不動産信託

十個年未滿	一、五〇一
十個年以上	三、九二三
二十個年以上	七四、四五八
五十個年以上	三、二八七
百個年以上	七〇〇

의 狀態로 短期信託은 만흐나 不動産信託은 百個年以上의것이 七十萬圓에 達함은 日本內地信託에서는 全然 볼수업는일이라고하며 黃海道 康某라사람으로부터 期限千年이라는 驚異的 長期金錢信託의 申請이 잇섯는데 이에對하야 會社에서는 二十二萬圓申請中 十萬圓을 受諾하엿다고한다

米日爲替少高

【京城十九日發同盟】十九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 二十九弗十五仙으로 二仙高 買 二十九弗十二仙으로 二仙高

▲東京爲替(二十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一 買 二十九弗十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二十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米積載異常? 傭船의減少로

鮮航會解消後 朝鮮米積載船은 增加傾向이더니 最近 傭船이 約二十隻의 激減이 잇섯슴으로 傭船이 줄어 現在의 가른 臨時船本位의 朝鮮米積載에 잇서 當然히 影響이 잇슬터이라고한다

取引停止

(二月十七日)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東洋機械商會 金相彬

經濟界消息

○米倉會社釜山支店發動機船新造=米倉會社에서는 釜山支店의 曳船用으로 十二噸의 發動機船을 新造하고 十八日 進水式을 擧行하엿는데 그박게 曳船五十噸積 二隻를 新造中이라고

○新製煙草發賣計畫=專賣局에서는 高級新製品을 名稱「가오리」十本入價格二十五錢、軍隊專用兩切煙草 名稱「이사오」十本入價格五錢의 二種類를 七月一日부터 發賣할 豫定이라고

○商工聯合會役員任期滿了=京城商工聯合會와 鄙賈商聯盟會에서는 三月下旬 總會를 열고 新規事業計畫及豫算決算의 承認과 役員全部 任期滿了에 對하야 改選을 하기로 되엇는바 正副會長과 幹部中 重要한사람은 모다 重任될 모양이라고

商況 (二十日)

株式 利喰押後底堅

前場下押 昨後場 新價昂高되든물이어 今前場은 總選擧投票當日이라 그結果를 기다리고 外電스럼 反落과 相俟하야 利喰下押이엇스니 即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 九十錢低인 百六十四圓十錢 大新 五十錢低인 九十三圓三十錢 日産不變인 七十五圓四十錢、日産新 二十錢低인 二十一圓七十錢、鐘新 百五十八圓丁、朝新不變인 二十九圓七十錢에 各大引、日窒 六十四圓四十錢 一本이 잇섯다

後場底堅 中旬入超 二千二百三十七萬圓인데 總選擧로 大阪早引이 底底保合이엇슴으로 當地도 結局 前引에 比하야 東新 十錢低인 百六十四圓丁 日産 二十錢低인 七十五圓二十錢、大新 三十錢高인 九十三圓六十錢、鐘新 十錢高인 百五十八圓十錢、朝新 十錢低인 二十九圓六十錢、拓新 十七圓丁 各大引

期米 少幅圈內細刻

前場保合 昨後場 阪地 三十一圓三十錢止와 共히 二十九圓〇八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至하야 阪地初付 三十一圓十三錢인 三丁高를 擲하고 二十九圓十三錢인 五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 二十八錢까지 小崩하엿다가 二十九錢에 止場하얏슴으로 場況은 極히 閑散狀態로 七錢으로 結局 〇八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九……

軍擴競爭反響 軍事株一齊昂騰

【東京電話同盟】軍備縮小는 遂日 國際間에 擴張되어 軍需工業의 好況은 世界的으로 되고 紐育의 스틸株는 數日間에 十五弗暴騰하야 東京市場에서도 數日來 造船 機械工業 製鋼等을 中心으로 買氣强하고 浦賀船渠와 如함은 大正九年以來의 新高價인 七十七圓으로 石川島造船 函館船渠等은 每日 三圓式 昂騰되는터로서 이 形勢는 自然 他株에도 刺戟되어 十九日은 全面的으로 買氣가 起하얏다 人氣의 傾向으로서는 一、二旬前까지는 거의 保險及大口側이 特殊한 銘柄에 對한 買進뿐이던것이 最近에 大衆化되어 株式種類도 從하야 普遍化되엇다 取引數量도 每日 三四十萬株인 好況이다

實物前場取引

▲朝鮮製鍊 二、二七〇 ▲北朝鮮製紙 一、九六〇 ▲富士木材 一、九〇〇 ▲帝麻新 一八八〇 ▲川崎造船 三五二〇 ▲川崎優先 四八〇〇 ▲朝鮮石油 一七四〇(取引高六四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通】總選擧待 人氣로 全혀 氣乘치안코 市中은 閑散이오 市勢는 保合이다

甲五分利 一〇五、四五

投機時代로 移行過程?

軍擴競爭을 基因으로한 列國共通의 財界刺戟은 相當히 큰것이잇스리라하야 雜株는 軍需株를 中心으로 株價對比의 買物이 不絶하며 投資時代로부터 投機時代로의 移行過程으로보는 傾向이잇서 總選擧의 結果가 判明되고 政局이 安定되면 買進케되리라는 觀測이 有力化한다

月末高를期待

三月의 金融緩慢이 市場의 問題가되어잇는데 二月은 高價雜株의 壓迫도잇서 局面이 疑問이나 三月은 金融緩慢이잇서 跳返되리라는데 對하야 그 豫想되는 高場에 對應할 方針으로서 東京地場는 大概 賣玉을 저하엿스나 市勢는 그 反對로 떠러지지안코 月末에 接近하야 賣玉에 손이가서 三月高를 不待하고 月末高로 보는 便이 不無하다

新價後에利喰押

東京期新은 昨後場에 新價 百六十五圓二十錢에까지 올라서 十日低價 百五十九圓六十錢에서 五圓六十錢高이엇든바 今日은 總選擧投票當日이라 그結果待로 一應 利喰押을 示하얏다 그런데 總選擧後 政局은 高橋藏相이 不動하는限 어데로 政變이가던지 閣僚의 사람이 갈리던지 政局安定이 落着되면 東新도 買進될것이라고 押壓되어 잇다

今月은閑散期

本月은 天候閑散期로서 例年同期에도 그다지 큰 波瀾이 업섯다고한다 本年本月도 先限의 最高 二十九圓五十一錢 最低 二十八圓八十九錢인 六十二錢內外의 波紋을 일으키고 因而 保合範圍에 入하고 말엇다 賣惜하는 農家로서 殺到出한다할지라도 春暖期인 三四月頃이 아니면 産地出廻의 壓迫을 受하는 分間은 안올것임으로 當期까지에 일으지안을것이며 此의 反映으로는 日本內地米及朝鮮米의 買收高가 前途需給의 不安을 一掃한만큼 客月의 天井인 當地 三十圓〇六錢을 上廻할만한 材料가 업슴으로 無謀히 買釣할 勇氣도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當分 此邊에서 强軟兩派의 警戒와 共히 어느時期까지 稍高稍弛의 細刻으로 推移할것이다 往來하지안흘가한다 買方에 援助될만한 第三次買上이 남아잇스나 그러나 政府에서 擧步를 調節할지도 疑問이오 暴騰을 禁할만한 材가 아닌데 어느時期까지 保合는 免치못할것가다 果如何?

材料待의商狀

圓十錢에 二十錢高로 始場後 〇九錢과 十錢間에 細刻하다가 十三錢에 止場하다。

新甫四月限은 一時 九圓五十錢까지 昂騰하엿다가 朝鮮의 貯藏解除와 水害의 融解를 機로하야 二十八圓八十九錢까지 下押하엿더니 産地의 依然 賣物薄으로 正租의 市勢가 꾸준하게도 堅調임을 伴하야 九圓〇五錢으로 反騰하엿다 그러나 買方에게도 援助될만한 何等의 强材가 업는모양이다 實로 前途餘力도 업는모양이다 實로 大勢는 누구나 昂騰할것으로 豫期하나 當分間은 第三次買上 發表될때까지 强材料로 認할만한 條件이 업고 農家가 아무리 賣惜한다할지라도 貯藏의 解除를 딸아 賣出하게될것이며 又는 肥料의 必須할 時期가 到來함을 딸아 換金的 賣物이 업지안흘것임으로 結局은 正米勢의 威壓을 加하지안흘가한다 그러나 此亦 未然의 推測인만큼 確乎한 賣方針을 樹하기가 困難할 까지는 此邊에서 一張一弛의 保合를 繼續하지안흘가한다

今日財界 (二十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正米 (三等)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市中金融 一分貸 [illegible]

◆株 (單位錢)
朝取 新 [illegible]
東株 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公債 甲五分利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當中限은 解合成立에 依하야 幾分好感인듯하나 田中房의 離阪等으로 新規材料待로 今朝는 總選擧關係도 잇서 閑散이고 保合에 終하얏는데 解合成立에 依하야 當限은 無事이나 取組가 만흔 中限은 이에 依하야 今後의 取引은 惡材出盡이 되고 相當히 動할것이라고 보고잇다

賣方 東京側 地場聯合側 來
客側 正米側
買方 岡米의대신下關側 潮先

市場六感

株 百六十五圓臺로 뛰어오던 東新이 今朝는 利喰押 ▲總選擧結果待인족 그럴일 ▲總選擧後 政局이 어떠하냐가 目前 重大關心處인데 ▲總選擧後 大藏大臣이 갈리면 東新 十圓低는 難免이라고 보는것이 常識論인데 ▲高橋가 辭任한다드래도 財界根本이 變할理 업고 찰아리 高橋氏에 依하야 積極政策을 抑壓하얏던만큼 도리어 조치안흘가 하는말도 잇다 ▲軍事豫算을 抑壓할 時代에는 高橋藏相이라야 하지만……

米 本月中의 最高는 二十九圓五十一錢 最低는 二十八圓八十九錢이라하여도 過言이 아닐것 가다 ▲氷雪이 漸次融解되어도 農家의 賣物은 依然稀薄하니 更落할 餘力이 업슬것갓고 그反面으로는 도이러타할만한 强材를 發見하지못하엿스니 昂騰도 亦 期待難 ▲賣方은 政府의 第三次買上을 唯一한 强材로 信賴하고 잇스나 어느時期에 實行할지도 몰으거니와 實行한다할지라도 第二次買上으로 보아서 그 렇지만 最近의 內外情勢는 軍艦膨脹必至이족 상관업다는말 다지 큰 波紋이 업슬것을 豫期 ▲그런데 第一 注目할것은 農家의 態度如何인데 今後 端境期에 至하기까지 繼續賣惜하는때는 絶對低落이 업슬모양 ▲그러나 貯藏解除된後에는 多少라도 産地賣物이 現出할모양이니 期正의 一騎低落을 示할뭇도하다 ▲그러나 本月은 年來로 固定된 閑散期인마큼 此邊에서 一張一弛하다가 越月하지안흘가한다 ▲그런데 萬人이면 萬人이 모다 前途米價가 昂騰할것이라고한다 그럼으로 市勢는 依然 强含 性을 帶할뿐

各地正米

京城續高 擴히 一部이나 假需要가 잇고 賣物薄도 相俟하야 繼續 十錢高唱인 丸仁三等 二十八圓七十錢 四等 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 二十一圓五十錢

仁川强堅 淸算 不透明이나 市場賣物薄으로 期品에 對應하야……

釜山下支 市場賣物三千五百叺 定期不透明으로 一般이 低價買氣이나마 市場도 下支인 角7三等 二十八圓 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二十錢

大邱保合 産地가 無味하나 定期不動으로 買氣가 薄하고 市況은 沈靜保合인 角7三等 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七十錢

群山一息 三月一日 現在의 殘存米高如何를 注目하고 ……

木浦鈍重 期米의 小浮動保合을보고 依然買氣不振이오 市況低迷를 未脫하야 丸木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株式 (二十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二十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金融 (二十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外國爲替 ◆金貨入價

[illegible]

米穀 (二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二十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商品市勢 ◆鰊油冲價 ◆鰯搾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高價買入
株式會社 石福鑛業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長本局四八五六
土 金 福 石 金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 (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平北寧邊産業組合에서
由多數賣入하십시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